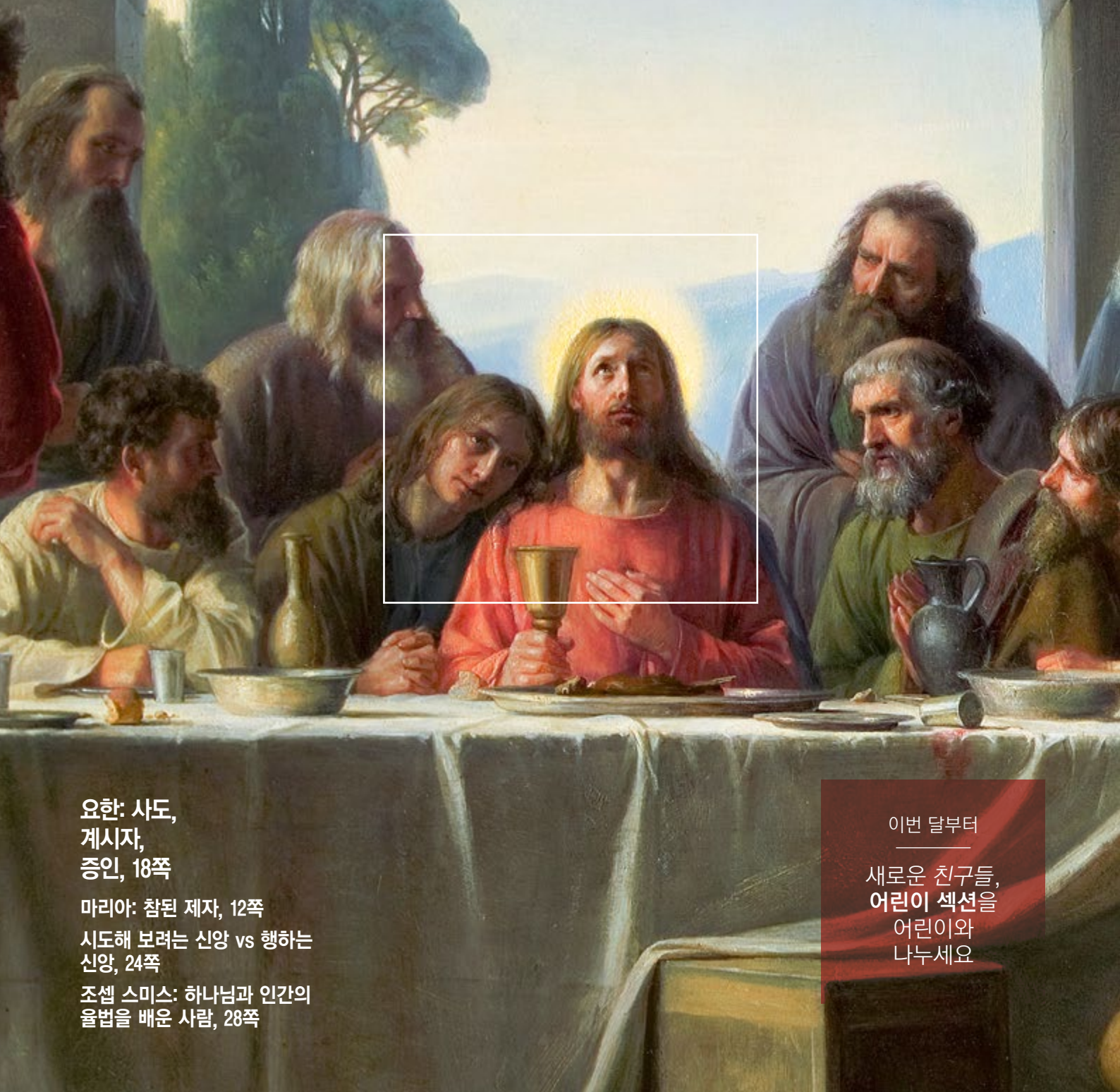


리아호나



요한: 사도,
계시자,
증인, 18쪽

마리아: 참된 제자, 12쪽

시도해 보려는 신앙 vs 행하는
신앙, 24쪽

조셉 스미스: 하나님과 인간의
울법을 배운 사람, 28쪽

이번 달부터

새로운 친구들,
어린이 섹션을
어린이와
나누세요

여기에
교회가
있다

일본 도쿄





후기 성도 가족인 사이토 집안 사람들은 일본 도쿄 아나카 묘원으로 성묘를 간다. 그들에게 이곳은 기억의 장소이다. 그들은 가족이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는 복음 지식 때문에 이곳을 더욱 성스럽게 여긴다.

가문과 조상에 대한 존경심은 일본 문화 속에 깊게 뿌리내려 있다. 일본의 후기 성도들은 기쁘게도 조국에 세 곳의 성전을 둔 축복을 받게 되었다. 그곳은 (아시아 최초의 성전이자 1980년에 헌납되어 현재는 수리 중인) 도쿄 성전, (2000년에 헌납된) 후쿠오카 성전, 그리고 (2016년에 헌납된) 삿포르 성전이다. 일본에는 64곳의 후기 성도 가족 역사 센터가 있다.

선교사들이 일본에 처음 도착한 것은 1901년으로,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고 훗날 교회의 7대 회장이 된 허버 제이 그랜트(1856~1945) 장로가 선교사들을 인솔했다. 현재 일본에는 261개의 단위 조직과 13만여 명의 회원들이 있다.

- 일본어 물문경의 초판 번역은 5년이 소요되었으며, 1909년에 완료되었다. 개정 번역본은 1957년에 출판되었다.
- 아시아 최초의 후기 성도 집회소가 1964년에 일본에서 헌납되었다.
- 일본계 총관리 역원으로는 하와이 출생의 애드니 와이 고마츠(1923~2011)와 샘 시마부쿠로(1925~2015), 요시히코 기쿠치(명예 총관리 역원)와 고이치 아오야기(명예 총관리 역원) 및 다카시 와다, 그리고 가즈히코 야마시타가 있다.



제자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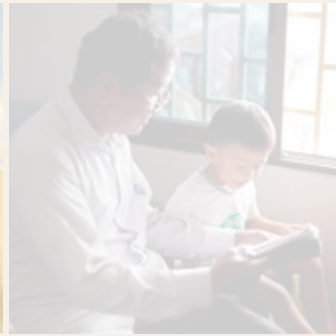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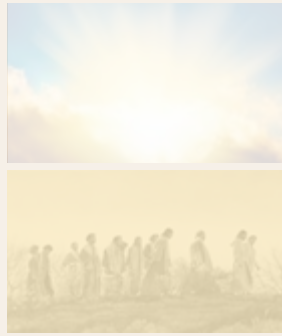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치 제자가 되는 데 필요한 헌신을 시험하고자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올해 신약전서를 공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모범에서, 그리고 자신의 스승에게서 배우고 그분을 더욱 닮아 가려 노력한 그 제자들의 가르침과 본보기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브리검 영 대학교의 신약전서 교수로서 저와 제 동료 게이 스트라던은 이번 호에서 주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12쪽) 주께서 사랑하신 제자 요한(18쪽)에게서 배울 수 있는 제자 됨의 모형에 관해 몇 가지 고찰한 것을 전하고자 합니다. 두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위대한 증인에 속합니다. 사실 하나님 아버지를 제외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 어머니만큼 잘 아는 이는 없었으며, 사도 요한은 원래 십이사도 중 한 명으로 주님의 가장 가까운 친구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과 다른 제자들이 보여 준 헌신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제자가 되는 방법과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제자 됨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약전서를 공부할 때, 우리는 예수님에 **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뿐 아니라 실제로 그분을 더욱 잘 **알게 될 것입니다.**(요한복음 17: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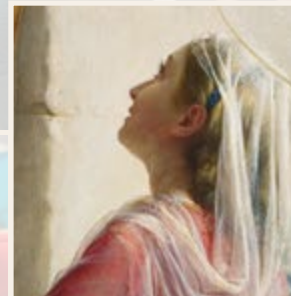
충실한,
에릭 디 헌츠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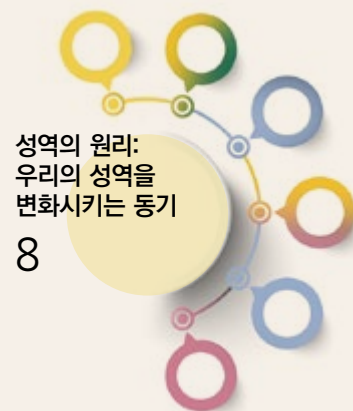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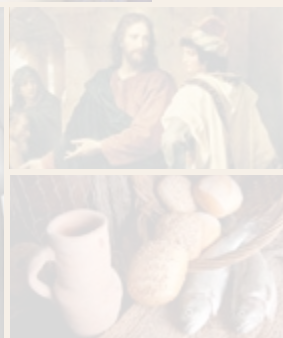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놀라운 사명
델린 에이치 옥스 회장
28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 요한
에릭 디 헌츠먼
18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게이 스트라던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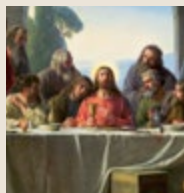
- 5 **신약전서에 등장하는 상징들** 

우리는 신약전서의 사물과 문화, 역사와 장소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 6 **신앙의 초상:** 

판 폰—캄보디아 프놈펜
 화재가 일어난 다음 날, 우리는 무릎을 꿇고 주님께 새로운 집을 찾을 방법을 보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했다.
- 8 **성역의 원리:**
우리의 성역을 변화시키는 동기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데려올 수 있도록 우리는 성역을 베풀며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 12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게이 스트라던
 우리는 마리아가 보여 준 신앙과 헌신의 모범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 18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 요한**
에릭 디 헌츠먼
 사도 요한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받는 제자가 될 수 있다.
- 24 **신앙의 두 단계**
윌포드 더블유 앤더슨
 신앙이란 단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것이다.
- 28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놀라운 사명**
달린 에이치 옥스 회장
 조셉스미스를 직접 본 증인들의 기록과 법률 문서들을 살펴보면, 조셉의 성품과 그가 인생에서 성취한 일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 38 **후기 성도의 소리** 

나무에서 떨어져 내리는 구도자들, 두려움에서 흡족히 취함으로, 하지만 배가 고프군요!, 신앙으로 작동하는 보일러

 짧은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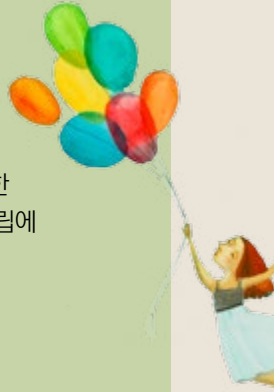
표지
최후의 만찬.
카를 하인리히 블로흐.

섹션

청년 성인

42

우리의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돌보는 것은 **균형 잡힌 즐거운 삶을 유지하는 데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정서적인 자립에 관한 이번 달 기사들을 확인한다.



청소년

50

여러분의 가치를 이해하는 법과 **네 가지 중요한 영역에서** 구주처럼 성장하는 법을 배운다. **2019년 상호 항상 모임 주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보임으로써 여러분은 어떻게 행복감을 느끼는지 알아본다.



어린이

어린이 섹션은 이제 친구들이라는 부록으로 발간된다. 우리는 이로써 어린이들이 신앙을 쌓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란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린이가 없다면, 새로운 친구들 잡지를 자신의 와드나 지부, 이웃에 있는 어린이에게 줄 수 있다.



추가 정보

복음 자료실 앱과 liahona.lds.org에서 여러분은

- 최신 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전용 기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 과월 호 기사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의 이야기와 피드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구독 신청을 하거나 구독권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도구로 학습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 가장 좋아하는 기사와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 가장 좋아하는 기사를 다운로드하고, 듣고, 인쇄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용 기사



정서적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14가지 방법

헤더 존슨

이 방법들을 통해 여러분은 본래의 자기 모습으로 돌아온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다.



자신에게 맞는 정신 건강 전문가 찾기

케빈 테리엇

정신 건강 전문가를 만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를 아는 데 이 기사가 도움이 될 것이다.

문의

liahona@ldschurch.org로 질문과 피드백을 보내 주십시오.

신앙을 증진시키는 여러분의 기사를 liahona.lds.org나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Liahona, fl. 23
50 E.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0023, USA

2019년 1월호, 제56권, 제1호
리아호나 14797 320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판 잡지

제일회장단: 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헨리 비 아이어링

심사도 정회원: 엘 레일 벨라드, 제프리 알 올렌드, 데이비드 에프 우호드도르프,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다도드 크리스토퍼슨, 닐 엘 앤드슨, 로널드 에이 레스벤드, 게리 이 스티븐슨, 데일 지 랜던, 게렛 더블유 공, 올리세스 소아레스

편집자: 우고 이 마르티네즈

고문: 브라이언 케이 애쉬턴, 랜들 케이 베네트, 베키 크레이븐, 웨런 윌랜드, 크리스티나 비 프랑코, 랜디 디 프랑코, 도널드 엘 스톨름, 더글러스 디 홀츠, 에릭 더블유 코우피쉬케, 린 지 로빈슨

관리 책임자: 리차드 아이 히튼

교회 잡지 책임자: 앨런 윌 로이보그

비즈니스 관리자: 가르스 캐넌

관리 편집자: 애덤 시 울슨

관리 부편집자: 라이언 카

출판 보조: 프란시카 울슨

기사 작성 및 편집 팀: 머리사 드니스, 데이비드

딕슨, 데이비드 에이 애드워즈, 매튜 디 플리톤, 로리 풀러, 게렛 에이치 가르, 라린 포터 건트, 존 라이언 켈슨, 살렛 라카발, 마이클 알 모리스, 에릭 비 머독, 샬리 존슨 오대커코, 조슈아 제이 퍼키, 잰 핀보로우, 리차드 엠 롬니, 민디 셸루, 차켈 워들레이, 머리사 위디슨

편집 인턴: 알렉스 휴지

관리 미술 책임자: 제이 스코트 크누센

미술 책임자: 태드 알 피터슨

디자인: 자넷 앤드류, 페이 피 앤드러스, 맨디 벤틀리, 시 캄벌 보트, 토마스 차일드, 네이트 지네스, 콜린 킥클리, 에릭 피 존슨, 수잔 로프그렌, 스킵 엠 무이, 에일리 치에코 레밍턴, 마크 더블유 로빈슨, 브래드 테어, 케이 니콜 워너호스트

디자인 인턴: 머리사 엠 스미스

지적 재산 코디네이터: 콜레트 네베거 오운

제작 관리자: 제인 엘 피터슨

제작팀: 글렌 에더어, 줄리 버넷, 토머스 지 크로닌, 브라이언 더블유 지기, 지니 제이 넬슨, 데렉 리차드슨

사건 인쇄: 조슈아 드니스

인쇄 책임자: 스티븐 티 루이스

배부 책임자: 트로이 알 버커

우편 주소: Liahona, Fl. 23,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0023, USA.

통권: 제634호, 제56권, 제1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9년 1월 1일(월간지)

발행인: 이호상

편집 및 번역 책임자: 최봉선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자하문로 152

인쇄인: 한국학술정보(주) 채종준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HTTP://LIAHONA.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전화 080-238-8000)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당 가격은 7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한은행 100-001-389810
리아호나/“나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론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살어, 말라가시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비아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와힐리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중국어(간체자),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티어, 타갈로그어, 타히티어, 태국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 (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8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저작권 정보: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리아호나에 실린 자료는 교회 및 가정에서 (교회 부를 관련 목적을 포함하여)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시각 자료는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 North Temple St., FL 13,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For Reader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October 2018 Vol. 42 No. 10. LIAHONA (USPS 311-480) English (ISSN 1080-955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 (American Express, Discover, MasterCard, Visa) may be taken by phone or at store.lds.org. (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ll UAA to CFS (see DMM 507.1.5.2) NONPOSTAL AND MILITARY FACILITIES: Send address changes to Distribution Services,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USA.



신약전서에 등장하는 상징들



이 책이 전하는 가르침 외에도 우리는 신약전서의 사물과 문화, 역사와 장소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산: "산은 오르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이제 주께서 노력과 순종의 결과를 강조하기 위해 제자들을 불러 산에 오르라고 하셨다. 그분은 여러분에게도 비유적으로, 또는 어쩌면 문자 그대로 똑같은 것을 요구하실 것이다."

감람: "예수께서는 속죄의 첫 번째 요소를 실천하시기 위해 감람산 아래로 오셨다. 그분께서는 겻세마네 동산에서 이를 행하셨다. 겻세마네라는 단어는 '누르다'를 뜻하는 *gath*와 '기름', 특히 올리브유를 뜻하는 *shemen*이라는 두 가지 히브리어 어원에서 나온 말이다. 여기서 큰 돌 바퀴의 무게로 올리브를 눌러 귀한 기름을 짜낸다. 그러므로 겻세마네 동산의 그리스도는 문자 그대로 세상의 죄의 무게 아래 눌렸던 것이다. 그분께서는 모든 구멍에서 피와 같은 엄청난 땀(그분 삶의 '기름')을 흘리셨다. (누가복음 22:44; 교리와 성약 19:1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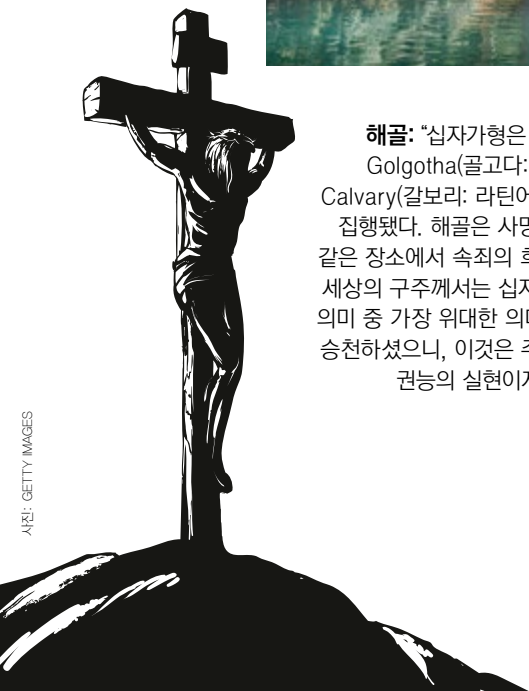


물: "요단강은 예수께서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마태복음 3:15), 요한에게 침례받기로 정하신 곳이었다. 이 성스러운 의식이 지구상에서 사실상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담수에서 행해졌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분이 겸손히 내려갔다가 올라오신 낮은 심연을 상징하는 이보다 더 나은 장소가 있을까?"

해골: "십자가형은 '해골'을 뜻하는 Golgotha(골고다: 히브리어) 또는 Calvary(갈보리: 라틴어)로 불리는 언덕에서 집행됐다. 해골은 사망을 상징한다. 이와 같은 장소에서 속죄의 희생이 완성된 것이다. 세상의 구주께서는 십자가에서 가능한 모든 의미 중 가장 위대한 의미에서 죽음을 이기고 승천하셨으니, 이것은 주님의 죽음을 이기는 권능의 실현이자 실재였다."



러셀 엠 벨슨, "이 성지에서", 성도의 빛, 1991년 2월호, 13, 17, 18쪽에서 발췌함.



판 폰

캄보디아 프놈펜



판은 집에 불이 났을 때 세 손주만 겨우 구해 낼 수 있었다. 그 외 다른 것은 모두 다 타 버렸다. 판은 불을 낸 이웃에게 화가 났지만, 자신의 분노가 가족과 이웃들에게까지 미치지, 그만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레슬리 넬슨, 사진작가

그 사람도 나처럼 가난하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불을 낼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에게 값을 치르게 하면, 그는 곤경에 처할 테고, 그를 증오하는 내 미움은 그대로일 것이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그를 용서해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용서하기로 결심하자 마음이 평화로워졌다.

불을 낸 이웃은 내가 그를 용서해 준 것을 기뻐했다. 우리 가족은 더욱 행복해졌다. 그런 모습을 보며, 나도 행복했다.

회원들과 이웃들은 형편껏 우리 가족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가져다주었다. 나는 쌀을 많이 받아서 그걸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도 했다. 사람들은 형편도 좋지 않으면서 왜 그렇게 나누어 주느냐고 의아해했다. 나는 남에게 봉사하는 것은 사실 주님께 봉사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대답했다. 내 온 생애 동안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나는 온전히 헌신하고 싶다. 이제 우리에게는 불타 버린 집보다 더 좋은 아름다운 집이 한 채 생겼다.

추가 정보

래리 제이 에코 호크 장로는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고 삶에서 평화를 얻는 데 용서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가르쳤다. 그의 가르침을 ids.org/go/1196에서 읽어 본다. 또한, ids.org/go/18에서 더 많은 신앙의 초상 기사를 읽어 볼 수 있다.







성역의 원리

우리의 성역을 변화시키는 동기

성역을 베푸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더 깊이 개심하고 좀 더 구주와 같이 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소망을 품고 성역에 임해야만 한다.

구 주께서 하셨던 것처럼 남들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분이 하셨던 방식으로 그들을 돕고 싶어진다. 선한 목자로서 주님은 의미 있는 성역의 궁극적인 모범이 되신다.

주님의 모범에 따라 성역을 행할 때, 사랑하고, 복돋우며, 봉사하고, 축복하고자 노력하신 그분에게는 즉각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 이상의 더 높은 목표가 있었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확실히 주님은 사람들이 매일 필요로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아셨고, 그들이 현재 겪고 있는 고통에 연민을 느끼셨다. 그래서 그분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먹이시며, 용서하시고, 가르치셨다. 하지만 구주께서는 오늘 하루의 목마름을 해소해 주는 것 이상의 일을 하고자 하셨다.(요한복음 4:13~14 참조) 구주께서는 주위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고(누가복음 18:22; 요한복음 21:22 참조), 그분을 알고(요한복음 10:14; 교리와 성약 132:22~24 참조), 그들 자신이 받은 신성한 잠재력에 도달하기를(마태복음 5:48 참조) 바라셨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교리와 성약 67:13 참조)

다른 사람들이 축복받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수히 많다. 하지만 우리가 성역을 베푸는 최종 목표가 사람들이 구주를 알고, 더욱 그분과 같이 되도록 돕는 것일 때, 우리의 목표는 바로 모든 이가 주님을 알아서 그분을 알도록 우리가 이웃을 가르칠 필요가 없는 날이 오는 것이 될 것이다.(예레미야 31:34 참조)





구주께서는 당장 필요한 도움 외의 것에도 신경을 쓰셨다

- 몇몇 사람들은 중풍에 걸린 친구가 치유될 수 있도록 예수께 데려가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결국 그 중풍 병자는 병에서 나왔으나 구주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하는 것에 더 큰 관심이 있으셨다.(누가복음 5:18~26 참조)
-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데려왔을 때, 구주께서는 그녀를 비난하지 않으셨고, 그럼으로써 그녀의 목숨을 구하셨다. 하지만 주님은 그녀를 영적으로도 구하고 싶으셨으므로, 그녀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요한복음 8:2~11 참조)
-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께 당신의 친구 나사로를 고치기 위해 와 주시기를 청하는 전갈을 보냈다. 하지만 무수한 사람들을 치유하셨던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숨을 거둔 이후에야 그에게 가셨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가족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셨지만, 그분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당신의 신성에 대한 그들의 간증을 강화하셨다.(요한복음 11:21~27 참조)

여러분은 또 다른 어떤 예를 이 목록에 추가할 수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더욱 구주와 같이 되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된다면, 성역을 베푸는 우리의 방식은 바뀌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역을 베풀 때 지침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방법 1. 봉사를 구주와 연결 짓는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노력은 가치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봉사를 구주와 연결함으로써 우리의 봉사를 향상할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성역을 베푸는 가족이 아플 경우에 식사를 제공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구주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간증하면, 여러분이 하는 단순한 사랑의 표현은 훨씬 더 큰 의미를 띠 것이다. 정원 일을 돕는 것만으로도 감사를 받겠지만, 신권 축복도 함께 준다면 더욱 의미 있을 것이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엘 앤더슨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군가가 타이어 고치는 것을 돕거나, 같이 사는 친구를 의사에게 데려가거나, 슬픔을 겪고 있는 누군가와 점심을 먹거나, 누군가의 기분이 좋아지도록 미소를 짓고 인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계명을 따르는 이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중요한 봉사의 행위 이상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¹

“성역의 원리” 기사는 우리가 서로를 돌보는 법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되고자 마련된 것이며, 성역 방문 시 메시지로 나누기 위한 것은 아니다.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해 알게 되면, 그들을 보살피게 되고, 그들에게 동정심을 느끼게 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필요한지 성신을 통해 알게 될 것이다.

방법 2. 성약의 길에 집중한다.

리셀 엠 빌슨 회장은 교회 회장으로서는 처음 전한 메시지에서 회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성약의 길을 계속 따라가십시오.” 성약을 맺고 지킬 때, “모든 영적인 축복과 특권의 문이 여러분에게 열릴 것입니다.”²

후기 성도로서 우리는 침례를 받고, 확인과 성신의 은사를 받는다. 합당한 남성 회원은 신권을 받는다. 우리는 성전에서 엔다우먼트를 받고, 가족으로서 영원히 함께 인봉된다. 이러한 구원의 의식 및 그와 연관된 성약은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는 데 필수적이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과 함께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사람들이 성약을 맺고 앞으로 맺을 성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곁에서 도움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³ 여러분이 봉사하는 개인이나 가족이 다음으로 받아야 할 의식을 받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는 딸에게 침례를 주기 위해 준비하는 아버지를 돕거나, 다음으로 맺게 될 성약의 축복을 설명하거나, 성찬을 취하는 동안 우리의 성약을 새롭게 하는 더 의미 있는 경험을 하기 위한 방법을 나누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방법 3. 권유하고 격려한다.

적절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보살피는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개심 및 더욱 그리스도와 같이 되고자 하는 그들의 노력에 관해 의견을 나눈다. 여러분이 발견한 그들의 강점과 칭찬할 만한 점들을 말해 준다. 그들이 개선할 점이 무엇이라고 느끼는지 알아보고, 여러분이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이야기한다. (성역을 베푸는 이들과 함께 협의하는 것에 관해 더 알아보고 싶다면, “그들의 필요 사항에 관해 협의한다”, *리아호나*, 2018년 9월호, 6~9쪽을 참조한다.) 구주를 따르도록 권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신성한 잠재력에 도달하기 위해 구주께 도움을 받도록 권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러한 권유는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 특히 여러분이 그들에 대한 확신과 구주를 믿는 신앙을 함께 나타낼 때 더욱 그렇다.



1. **공유한다.** 좌절을 겪었으나 복음 원리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구주께 가까이 가고자 노력했을 때, 그분이 어떻게 여러분을 도우셨는지 진솔하고 담대하게 이야기한다.

2. **축복을 약속한다.** 사람이 변화하려면 변화하지 않을 이유보다 더 강력한 이유가 필요하다. 특정 행위와 관련된 축복을 설명하면, 강력한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교리와 성약 130:20~21 참조)

3. **권유한다.** 복음 원리대로 살면 그것이 참되다는 간증을 얻을 수 있으며(요한복음 7:17 참조), 그래서 더 깊은 개종이 일어나게 된다.⁴ 그들과 함께 할 때마다 그들이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무언가를 하도록 단순한 권유를 할 수 있다.

4. **함께 계획한다.**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성공적으로 변화하고자 하는 결심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일어나야 하는 일의 순서가 있는가?

5. **지원한다.** 도움이 된다면, 그 사람이 계속 동기를 갖고 성공을 경험하는 데 도움이 될 인적 지원 네트워크를 발전시킨다. 우리는 모두 우리를 돕고 격려해 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6. **확인한다.** 진척 상황을 정기적으로 공유한다. 계획을 충실히 따르지만, 필요할 경우에는 그것을 개선한다. 인내하고, 계속해서 격려한다. 변화가 일어나려면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향해 발전하도록 돕는 6가지 방법

다음은 삶을 개선하고 성약의 길을 따라 발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이다.

행하라는 권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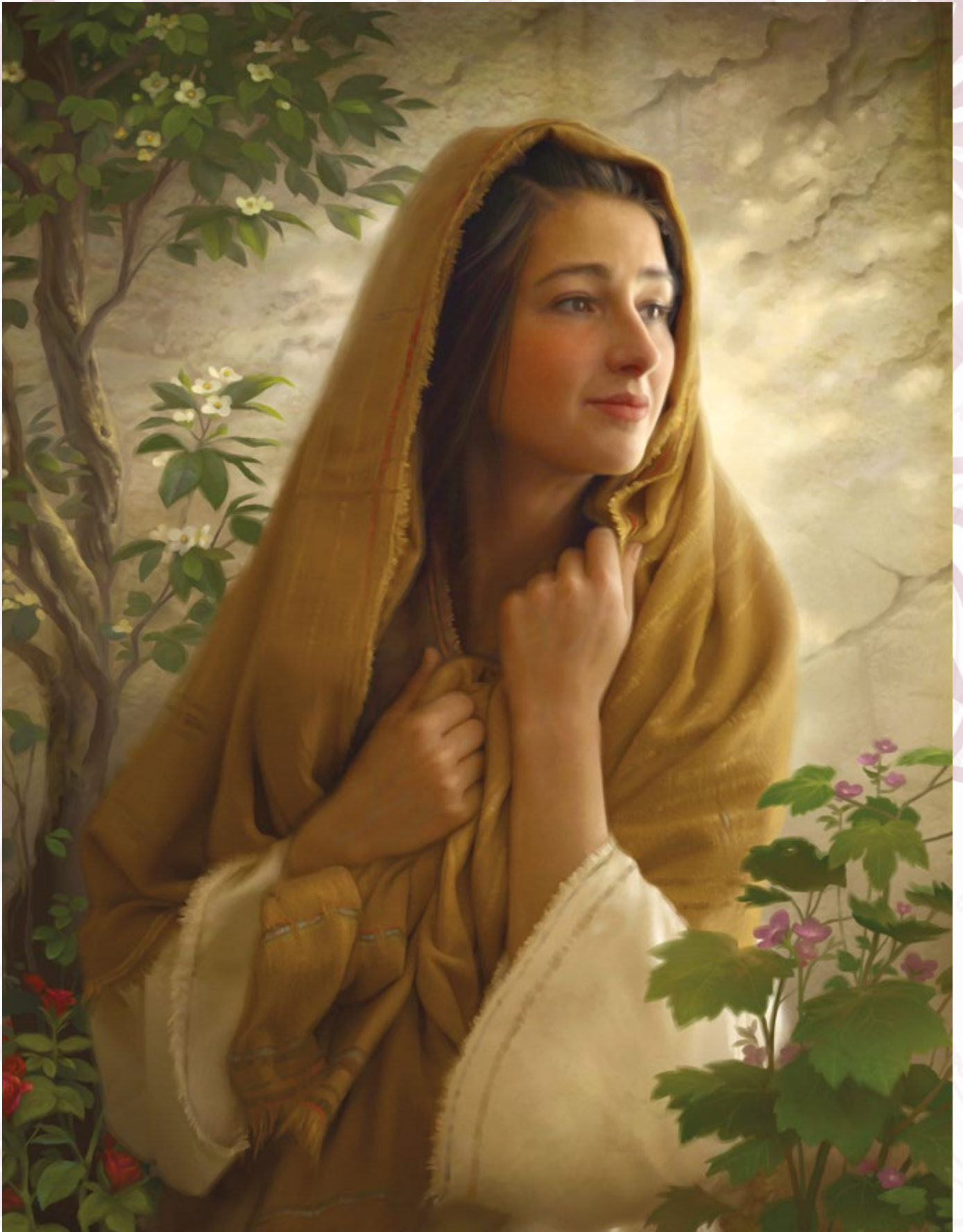
여러분이 성역을 베푸는 방식을 생각해 본다. 크든 작든 간에 그것은 사람들이 더 깊이 개종하고 더욱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 주십시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성역을 베푸는 경험이나 성역을 받은 경험을 보내 주십시오. liahona.lds.org에서 “기사나 피드백 제출”을 클릭하십시오. ■

주

1. Neil L. Andersen, “A Holier Approach to Ministering” (Brigham Young University devotional, Apr. 10, 2018), 3, speeches.byu.edu.
2. 러셀 엠 넬슨,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리아호나*, 2018년, 4월호, 6~7쪽.
3. 헨리 비 아이어링, “성약의 말씀”,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125~128쪽 참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의 이야기는 제자 됨의 대가와 축복을
상기시키는, 시대를 뛰어넘는 교훈을 들려준다.

게이 스트라던

브리검 영 대학교, 고대 경전 부교수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성경에 언급된 소수의 여성 중 한 명이자 태어나기 몇 세기 전부터 그 생애와 성역이 예언된 유일한 인물이다.(니파이전서 11:15, 18; 모사이야서 3:8; 엘마서 7:10 참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쓴 신약전서의 저자들은 당연히 구주를 중점적으로 조명했으므로 마리아의 생애와 성역은 간략하게 언급하는 데 그친다. 초기 기독교 교회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서 마리아가 담당할 중요한 역할을 상기시키기 위해 그녀에게 성모(*theotokos*), 즉 “신을 낳은 자 또는 신의 어머니”라는² 칭호를 부여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루스 알 맥콩키(1915~1985) 장로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다른 모든 여성보다 주께 더 큰 축복을 받은 이를 과분하게 칭찬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뿐이시며, 마리아 역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마리아는 [전세에서] 고귀하고 위대했으며, 앞으로 행할 성역에 각각 예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과 닮은 남성의 영을 구주로 택하셨으며, 가장 위대한 여성의 영을 하나님 아들의 어머니로 택하셨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 우리 역시 그녀에게 적절한 존경을 보이며 그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³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잉태를 알린 기사는 이 놀라운 젊은 여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창을 제공한다.(누가복음 1:26~56 참조) 마리아가 가브리엘 및 엘리사벳과 나눈 교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젊은 여성을 보게 된다. 이 부름의 중요성은 그렇게 젊은 마리아에게는 분명 엄청난 무게였겠지만, 그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기꺼이 따랐다. 마리아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자녀를 알고 계시며, 평범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왕국 건설을 돕는 비범한 길에 동참하도록 부르신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마리아는 예수의 첫 번째 제자가 되었다. 그리하여 그녀는 예수를 따르는 것을 선택한 모든 사람의 본보기가 된다.

마리아의 고향 나사렛

안타깝게도 신약전서에는 마리아의 부모나 출생, 나사렛에서 살았던 그녀의 삶에 관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 누가는 나사렛을 도시 또는 읍으로 번역되는 폴리스(*polis*)로 설명했지만, 나사렛은 중요한 장소로 보이지는 않는다. 신약전서 외에는 서기 2세기 말까지 나사렛이 언급된 문헌은 하나도 없다.

우리가 아는 것은 나사렛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05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고, 비옥한 이즈레엘 골짜기를

내려다보는 갈릴리 저지대의 언덕에 있다는 것이다.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1세기 당시 나사렛은 도시나 읍보다는 촌락에 가까웠고, 인구는 사오백 명 정도로 추정된다.⁴ 소수의 예외는 있지만, 갈릴리의 주민 대부분은 생존을 위해 노동하고, 목축과 고기잡이를 하며, 가족을 먹일 식량을 마련하고 세금을 벌기 위해 땅을 일구고 일하느라 고군분투했다. 마을에는 성채가 없었다. 포장된 도로나 기념비적인 건축물이 있었다거나 건물에 대리석, 모자이크, 또는 프레스코같이 호화로운 재료가 사용되었다거나 수입된 고급 물건을 소장한 가구가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⁵ 발굴된 1세기의 집 두 채는 방 두 개와 초가지붕, 작은 뜰이 있는 평범한 단층 집으로 보인다.⁶ 장례 관습과 일부 석회석 용기 조각은 주민들이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이었음을 보여 준다.

이런 발견 중에 마리아나 마리아의 가족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만한 것은 하나도 없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나사렛에서 마리아가 어떻게 살았는지 엿볼 수는 있다. 마리아는 성전, 제사장, 부자가 모인 종교적 중심지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진, 시골에 사는 소작농의 딸이었을 것이다. 어려서부터 마리아는 어머니와 마을의 여인들과 함께 일을 하고 옷감을 짜며 음식을 하고 빨감을 모으고 집의 저수조나 마을 우물에서 물을 길고 들판에서 일을 하면서 근근이 살아가는 가족의 생계를 도왔을 것이다.

마리아의 부름

누가복음에서 마리아의 이야기는 천사 가브리엘의 등장으로 시작하는데, 가브리엘은 앞서 성전에서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바로 그 천사이기도 하다.(누가복음 1:11, 19, 26 참조) 가브리엘이 나타났을 당시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젊은 여성이었다.(누가복음 1:27 참조) 당시 마리아가 몇 살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고대에는 사춘기가 되기도 전에 혼인 계약을 맺는 것이 가능했다. 가브리엘의 등장 및 그의 선언, 즉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자”이고, “주께서 함께하시며” “여자들 중에 축복을 받았고”, 조셉 스미스 역 누가복음 1장 28절에 나오듯이 “선택되었다”는(앨마서 7:10도 참조) 가브리엘의 말에 분명 마리아는 혼란과 심지어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다. 그 순간 마리아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교차했는지는 그저 상상만 해

볼 수 있겠지만, 어쩌면 그녀의 심중에는 이런 질문이 떠올랐을 수도 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여자들 중에 축복을 받았다”고 여기시는 걸까?’ ‘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걸까? 그건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이 왜 나사렛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젊은 여성이 아닌 내게 가브리엘을 보내셨을까?’ 물론 마리아는 다윗의 혈통이었으나(누가복음 1:32; 로마서 1:3 참조) 로마 점령하에서 그것은 별 의미가 없었다. 마리아는 그저 하찮은 촌락에 사는 소작농 집안의 젊은 여성일 뿐이었다. 후에 나다니엘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요한복음 1:46) 말하지 않았던가.

가브리엘은 마리아의 생각과 마음을 가득 채웠을 질문 중 어느 것에도 답해 주지 않는다. 그 대신 그는 다음과 같은 전언을 계속 했다. 마리아는 아이를 잉태할 것이나 그 아이는 평범한 존재가 아닐 것이다. 그 아이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로 불릴 것이고,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받을 것이다.(누가복음 1:32~33 참조) 다시 말해서,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그녀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약속된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이 소식 전에 마리아가 혼란과 두려움을 느꼈다면, 그 후 마리아가 느꼈을 격렬한 감정은 그저 상상해 볼 수밖에 없다.

마리아의 이야기 중 이 부분에서 배울 수 있는 제자 됨의 한 가지 원리를 생각해 보자. 마리아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마리아가 청한 것이 아니었다!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것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는 기적을 간구했기 때문이지만, 그는 아주 다른 상황에서 마리아를 찾아왔다. 즉, 청을 들어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리아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온 것이었다. 결혼을 앞둔 마리아는 아마 미래에 아이를 가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했을 것이다. 아무리 1세기 유대교 내에 메시아에 대한 기대의 물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나사렛 출신의 젊은 소작농 여성인 마리아가 자신이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나 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은 것이다. 요점은, 제자로서 부름을 받을 때 우리는 종종 개인적인 인생 계획을 변경하도록 요구받는다라는 것이다.

누가는 가브리엘의 말, 그다음에는 엘리사벳의 말을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하지만 마리아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분명히 표현하는 대목도 세 차례에 걸쳐 나온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마리아가 “여자들 중에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하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전한다.

영감 어린 질문

첫 번째는 마리아가 가브리엘에게 한 이 질문이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누가복음 1:34) 상황을 감안하면, 마리아의 질문은 합리적이다. 그것은 독자들에게 사가랴의 이 질문을 떠올리게 한다. “내가 이것즉, 엘리사벳이 아들을 배게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리요”(18절) 하지만 사가랴의 질문은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 대한 가브리엘의 응답에 의문을 표하는 것인 반면, 마리아의 질문은 하나님이 마리아를 위해 말씀하신 그분의 뜻에 대한 설명을 구하는 질문이다. 하나님의 권유가 제자들에게 표준을 높이고, 편안한 환경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할 때, 질문은 불가피하게 따라오며, 영감에 찬 질문은 계시를 이끌어 낸다.

마리아의 질문에 가브리엘은 세 가지 측면에서 답을 주었다.

1. 첫 번째로,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성령이 네게 임하시리라”라고 말했다.(35절) 모든 시대의 제자들은

성령의 힘을 통해 그들의 부름을 영화롭게 한다. 토마스 에스 몬슨(1927~2018)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이 사업은 여러분이나 저의 것만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주님의 사업이며 우리가 주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부르신 자들을 준비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⁷ 그런 다음,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마리아의 상황에만 해당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⁸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35절)

2. 둘째, 가브리엘은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기적적으로 임신한 엘리사벳에 관해 마리아에게 알려 준다.(36절 참조) 엘리사벳의 임신은 마리아에게 그녀가 혼자가 아니며,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 적어도 한 명 더 있음을 알려 주는 것이었다.



마리아의 이야기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는 어려운 시기에 보이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지지로 얽혀 있다.

3. 셋째, 가브리엘은 명백히 선언한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37절) 엘리사벳이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행하신 것이었다.⁹ 가브리엘의 선언은 하나님의 권유에 응할 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모든 시대의 제자들에게 상기시킨다.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제자의 마음

필자가 생각하기에 이 이야기에 나오는 마리아의 두 번째 응답은 제자의 헌신과 인생관을 전형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누가복음 1:38) “여종”은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예고하신 부름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했음을 나타낸다. 이는 후에 그녀의 아들이 겐세마네에서 한 다음과 같은 말을 그녀식으로 표현한 것이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누가복음 22:42) 생의 이 시점에서 마리아는 아마도 자신에게 요구될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이고, 시므온이 나중에 마리아에게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라고(누가복음 2:35) 예언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신앙으로 나아가기로 선택한 것이었다.

“천사가 떠나가니라.”(누가복음 1:38) 가브리엘이 떠난 후 마리아는 홀로 남았다. 하늘의 사자 앞에서 제자로서 천명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천사가 떠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경험을 부모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요셉에게는? 사람들이나 나사렛 주민들이 그녀를 믿어 주지 않는다면, 마리아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까? 좁디좁은 나사렛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마리아에게 힘겨운 일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의 질문에 대한 가브리엘의 대답 중 두 번째 부분을 기억해 내고 엘리사벳의 집을 찾아간다. 누가복음 서두에 나오는 두 이야기는 그렇게 다시 서로 얽힌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자마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누가복음 1:41~42) 성령의 인도를 받은 엘리사벳의 인사말은 여자 중에 복을 받은 마리아의 위치에 관해 가브리엘이 밝힌 바를 더욱 공고히 해 준다. 이렇게 마리아는 자신의 부름에 대한 두 번째 증인이 생겼다. 그러나 그 증인은 마리아가 부름을 기꺼이 받아들인 후에야 찾아왔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는 현대 제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두 가지 위대한 측면을 상기시킨다. 그것은 전 세계 상호부조회의 핵심인 위대하고 상징적인 가치, 즉 나이가 다르고 각기 다른 인생의 국면에 처한 여성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서로 지지하고 돕는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은 당신이 부르신 이들이 힘든 시기를 겪을 때 그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그분은 대개 당신이 부르신 또 다른 이들의 팔로 그들을 감싸 안으시어 응답하신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마리아 송가

마리아가 다음으로 한 마지막 말은 마리아 송가로 알려져 있다. 그것은 엘리사벳의 말에 기쁨을 느낀 마리아의 반응을 담고 있다. 마리아는 자기 삶에 일어난 일에 대한 느낌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계획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 새로 얻은 이해를 나타낸다. 무엇보다도 마리아는 자신의 구주로서 기쁘게 여기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린다.(누가복음 1:46~47 참조) 마리아는 하나님이 자신과 같이 “비천[한]” 자를 선택하셨고(48~50절 참조), 아브라함의 성약을 이루는 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그녀를 선택하셨다는 두 가지 사실을 경험하면서(54~55절 참조) 하나님의 은총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았다.

“마리아가 석 달쯤 [엘리사벳과]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56절) 마리아는 이제 성스러운 부름에 응할 준비가 되었다.

마리아의 본보기

현대의 제자들과 마리아 사이에는 2천 년이라는 시간과 문화적인 거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이야기는 제자 됨의 대가를 상기시키는, 시대를 뛰어넘는 교훈을 전해 준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이들이 당신의 권유에 응하여 앞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신다. 러셀 엠 넬슨 회장이 이 점을 상기시켰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과 성약을 맺은 자녀들에게 어려운 일들을 명하셨습니다.”¹⁰ 마리아도 예외가 아니었고,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킬 신앙을 갖고, 그분을 위해 봉사할 때 그분의 영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신앙으로 그분이 주시는 부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본부 청녀 회장인 보니 에이치 코든 자매는 “우리는 힘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상기시키면서, “하지만 그 일을 즐겁게 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¹¹

현대의 제자인 우리는 어떠한 마리아 송가를 부를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환희를 어떻게 표현할까? 우리 삶에 나타나는 장엄한 하나님의 자비를 어떻게 표현할까? 우리 시대에 아브라함의 성약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는 역할을 찬양할 방법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이것들은 제자로서 마리아가 보여 준 놀라운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

주

1. 마태 역시 임파누엘이라는 아들을 낳을 동정녀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이 실현된 것으로 마리아를 이해한다.(이사야 7:14 참조) 그가 인용한 “동정녀”는 초기 기독교도가 사용했던 기원전 2세기의 그리스어 번역판 이사야의 기록에서 온 것으로 흠정역 성경 이사야 7장 14절에 등장한다.
2. 1830년판 물론경의 니파이전서 11장 18절에도 마리아는 “하나님 아들의 어머니”로서 선언되어 있다.
3. Bruce R. McConkie, *Mortal Messiah*, 4 vols. (1981), 1:326—27, footnote 4.
4. See James E. Strange, “Nazareth,” *Anchor Bible Dictionary*, 4:1050; Jonathan L. Reed, *Archaeology and the Galilean Jesus: A Re-examination of the Evidence* (2002), 131.
5. See Reed, *Archaeology and the Galilean Jesus*, 131.
6. See Ken Dark, “Has Jesus’ Nazareth House Been Found?” *Biblical Archaeology Review*, vol. 41, no. 2 (March/April 2015), 54—63; see also Ken Dark, “Early Roman-Period Nazareth and the Sisters of Nazareth Convent,” *The Antiquities Journal*, vol. 92 (2012), 37—64.
7. 토마스 에스 몬슨, “봉사하도록 부름받음,” *성도의 빛*, 1996년 5월호, 44쪽.
8. “뿔다”로 번역되는 그리스어(*episkiazō*)는 그리스어판 구약전서에서 성막 건축이 끝났을 때 그 위로 내려앉은 구름을 묘사한 것과 같은 단어이다. 이것은 주의 영광을 설명한다.
9. 주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늙어서 아이를 갖게 될 것임을 알리실 때도 아브라함에게 비슷하게 말씀하셨다.(창세기 18:14; 로마서 4:19~21 참조)
10. 러셀 엠 넬슨, “진정한 밀레니얼 세대로서 우뚝 서십시오,” *리아호나*, 2016년 10월호, 49쪽.
11. “보니 에이치 코든: 본부 청녀 회장,” *리아호나*, 2018년 5월호, 129쪽.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 요한

사랑받는 제자 사도 요한과 관련된
신약전서의 기록들은 요한을 교사이자
제자의 본보기로서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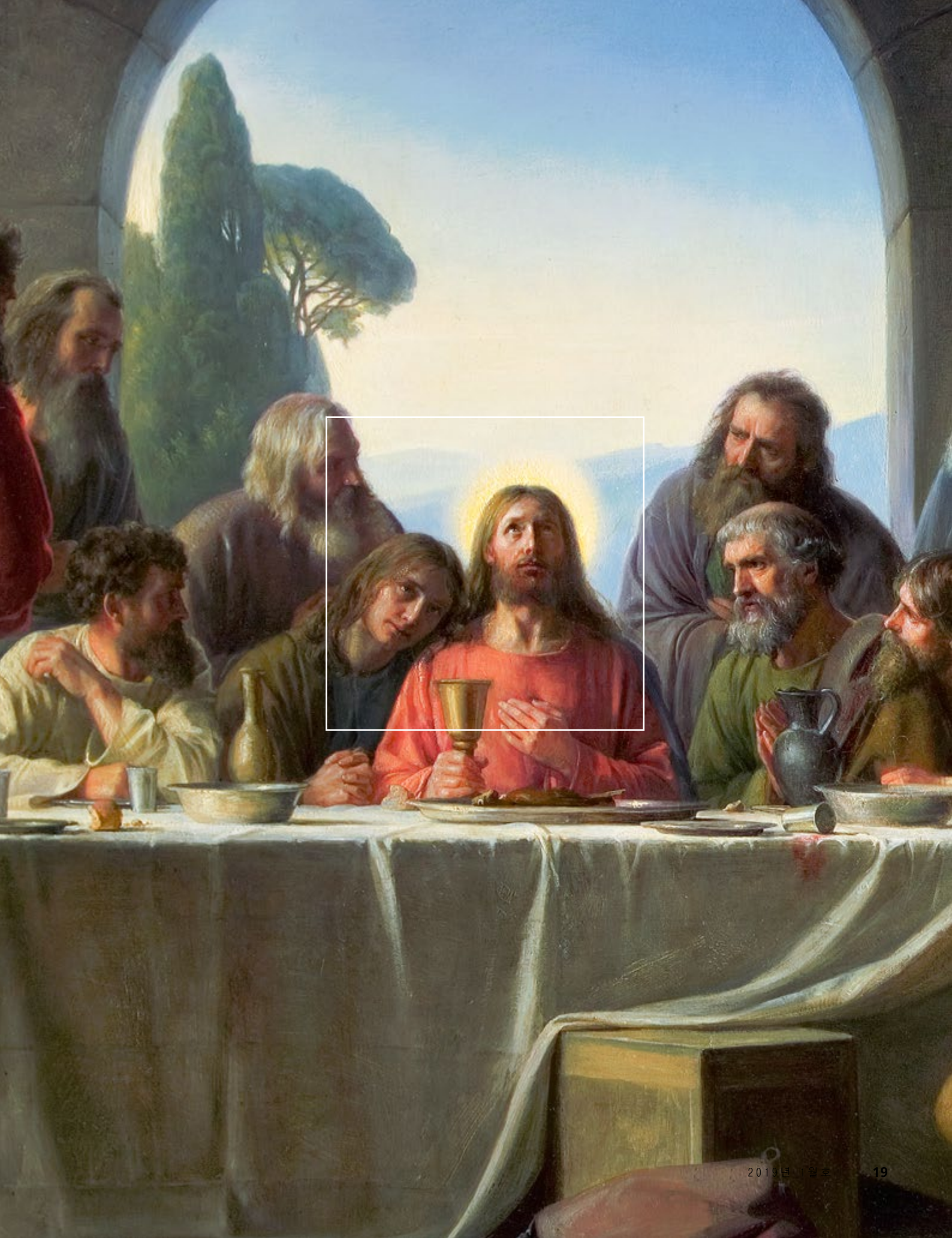
에릭 디 헌츠먼

브리검 영 대학교, 고대 경전 교수

요한은 아마도 예수의 초기 십이사도 중 베드로 다음으로 가장 잘 알려진 사도일 것이다. 요한과 그의 형 야고보는 구주의 지상 성역 중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베드로와 함께 경험했으며, 전통적으로 신약전서의 다섯 복음서와 관련되어 있다.¹ 그가 주님과 개인적으로 가까웠다는 것은 요한복음 13장 23절의 다음 내용에서도 알 수 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여러 시대를 거치며 기독교 미술에서 요한은 것처럼 대개 구주의 팔에 안긴 젊은이의 모습으로 그려졌다. 이것이 사랑받는 사도 요한이라는 독특한 칭호의 기원이며, 그의 간증과 사명은 우리 모두가 나눌 만한 제자 됨의 여러 측면을 드러낸다.

세베대의 아들 요한

요한의 히브리어 이름인 *요한난*(*Yohanan*)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의미이다. 우리가 아는 요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대부분은 대체로 같은 관점으로 구주의 성역 이야기를 서술한 첫 세 복음서에 나온 것이다. 이 복음서들은 모두 요한이 세베대라는 성공한 갈릴리 어부의 아들이라는 것을 공통으로 이야기하는데, 세베대는 자기 배를 소유하고 자신과 아들들의 일을 도울 일꾼을 고용할 수 있었다. 요한과 그의 형 야고보는 베드로, 안드레





예수의 부름에 응해
요한과 야고보는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 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마가복음 1:20)

형제와 동업자 관계였으며, 그 네 명 모두 예수께서
그분을 평생 따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 어부 일을
관두었다.²

세베대는 그 후 더는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지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를
따랐고, 아들들을 위해 예수께 탄원했으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자리에 있었다.³
일반적으로 살로메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자매 사이였다. 따라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의
사촌이자 침례 요한의 친척이 된다.⁴

부름을 받은 요한은 곧 주님의 수많은 초창기
기적과 가르침을 목격하게 된다.⁵ 그렇게 기적을
목격하고 산상수훈과 같은 강론들을 들은 경험은
분명 예수께서 요한을 십이사도 중 하나로
부르셨을 때 그가 준비되어 있을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⁶ 이런 특별한 증인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지상 성역에
있었던 다음과 같은 중요한 순간을 함께 경험한

측근 제자들의 핵심층을 형성했다.

-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을 때 죽음을 다스리는
주의 권능을 목격함.⁷
- 변형의 산에서 예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을 보고, 예수가 당신의
기뻐하는 아들임을 증언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음.⁸
- 감람산에서 마지막 날에 대한 구주의 마지막
예언을 들음.⁹
- 겟세마네 동산에서 구주께서 위대한 속죄를
시작하실 때 근처에 있었음.¹⁰

시몬에게 “바위”를 의미하는 *게바*, 또는
베드로라는 별칭을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보아네거(Boanerges), 즉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별칭을 주셨다.¹¹ 이들이 예수를 거부한
사마리아인들의 마을에 불을 내려야 하는지
여쭈었던 일로 미루어 볼 때(누가복음 9:51~56

참조), 이 별칭은 그들이 성격이 급하거나 적어도 매우 고집이 센 사람이었음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그들이 장차 강력한 증인이 되리라는 예견일 수도 있다. 마치 베드로의 이름이 현신적이지만 충동적이었던 초기의 성격보다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 그가 보인 확고부동함과 강인함을 반영했던 것처럼 말이다.¹²

사도행전에서 요한은 베드로의 굳건하고 변함없는 동반자로서 묘사된다. 요한은 베드로가 성전에서 절름발이를 낫게 할 때 함께 있었고, 예루살렘의 유대인 지도자들 앞에서도 함께 담담하게 설교했다. 두 사도는 함께 사마리아로 가서 빌립이 가르치고 침례를 준 사마리아인들에게 성신의 은사를 베풀었다.¹³

또한, 요한과 관련된 신약전서의 기록에는 자신의 스승이자 친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는 강력한 증인으로서 요한이 지닌 면모가 잘 드러나 있다. 이러한 신약전서의 책들은 요한을 교사이자 제자인 우리가 따를 만한 본보기로서 제시한다.

사랑받는 제자

흥미롭게도 전통적으로 그의 복음서로 알려진 기록에는 요한의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요한복음에서는 마지막 장에서 딱 한 번 세베대의 두 아들이 언급되는데, 이들은 갈릴리 바다 옆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일곱 제자 중에 속해 있었다. 하지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최후의 만찬 당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무덤이 비었을 때, 그리고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에 마지막으로 나타나셨을 때 있었던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는 요한이었다.¹⁴ 이는 회복된 경전의 내용으로도 뒷받침된다.¹⁵

그는 안드레와 더불어 침례 요한을 따르고 예수가 하나님의 양이심을 간증하는 침례 요한의 말을 들은 “다른 제자”였을 수도 있으며(요한복음

1:35~40 참조), 예수께서 체포되신 후 베드로와 동행하고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법정에 들어가도록 도와준 제자였을 가능성도 있다.(요한복음 18:15~16 참조)

이 사랑받는 제자는 요한복음에서 주님의 가깝고 개인적인 친구로 등장한다. 이 복음서에서 요한은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와 더불어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 중 한 명으로 분명하게 묘사된다.(요한복음 11:3, 5 참조) 최후의 만찬 때 식탁에서 그가 앉은 자리는 영예뿐 아니라 친밀함도 반영된 것이었다.

구주와 우정을 나눈 것 외에 다른 구절들에서 그는 예수의 성격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들의 강력한 증인으로서 등장한다. 그는 십자가 아래에 서서 죄를 위해 희생하신 주의 죽음을 목격했고, 부활 후 무덤으로 달려가 빈 무덤을 확인했으며, 부활하신 구주를 뵈었다.

요한복음은 그 기록이 사랑받는 제자가 목격한 것을 바탕으로 하는 것임을 두 차례에 걸쳐 언급하며 간증이 사실임을 강조하는데,¹⁶ 이는 조셉 스미스가 이 복음서를 “요한의 간증”이라는 제목으로 바꾼 것을 상기시키는 대목이기도 하다.¹⁷

사랑받는 제자의 정체를 놓고 학자들은 지금도

논란을 벌이지만, 그것이 사도 요한이 맞다면, 요한은 설사 원 제자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요한복음의 원 출처는 될 것이다.¹⁸ 그렇다면 왜 그는 끝까지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한 번도 직접적으로 사도 요한이라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일까? 그 이유 중 하나는 아마도 그가 자신의 경험이 모든 시대의 믿는 자와 제자들에게 하나의 유형이 되기를 의도한 데 있었을 것이다. 익명으로 남음으로써 그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의 경험에 투사하여 주를 사랑하고 주께 사랑받는 방법을 배우며, 그런 다음 우리 자신의 간증을 얻어 다른 사람들과 나누게 하고자 했다.

서한: 요한1, 2, 3서

요한복음처럼 요한의 서한으로 알려진 세 편의 서한에서도 그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서한이라기보다는 교리론에 가까운 요한1서는 문체 면에서, 그리고 요한의 기록에 나타나는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요한복음 21:24)

사랑과 순종의 중요성 및 최후의 만찬에서 구주께서 주신 가르침이라는 주제 면에서 밀접한 연관성을 보인다.

요한복음 이후에 쓰여진 요한1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저자의 간증을 다음과 같이 천명하며 시작한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로* 눈으로 본 *바로*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요한1서 1:1; 강조 추가) 요한복음의 첫 줄을 재차 언급하는 것 외에도 저자는 글자 그대로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강력하고 개인적이며 물리적인 증거를 강조한다.

원래 이 기록의 수신자였던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께서 교회를 떠나신 것에 관한 잘못된 믿음을 지지하는 집단과 내부적 분열을 겪으며 고통받고 있었다.¹⁹ 요한1서에서 저자는 단순한 증인이 아니라 잘못된 교리를 수정하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영이 만드는 신앙의 위협에 맞서도록 부름받은 권위자로서 기능한다.(요한1서 2:18~27; 4:1~6 참조) 그의 사명은 또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관한 뜻 깊은 진리 및 지속적인 신앙과 의로움의 중요성을 전함으로써 남아 있는 충실한 이들을 독려하는 것이었다.

요한2서와 요한3서에서 그는 자신을 간단히 “장로”라고 밝히면서, 사랑과 순종의 중요성, 거짓 교사 및 올바른 교회의 권세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위험성을 거듭 역설한다.²⁰

이 세 책은 모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속적 헌신의 중요성을 가르친다.

계시자

요한이 쓴 것으로 알려진 다섯 책 중 요한계시록만이 실제로 요한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서두에 저자의 이름을 세 차례에 걸쳐 밝힌다.(요한계시록 1:1, 4, 9 참조) 저자는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칭한 것 외에 지위나 부름을 달리 밝히지 않지만, 초기 기독교 권위자 대부분은 그를 세베대의 아들 요한으로 믿었다.

물론경 및 교리와 성약에도 사도 요한이 시현을 보고 그것을 기록할 특별한 사명을 받았음이 확인되어 있다.²¹ 난해하고 대단히 상징적인 책인 요한계시록은 박해 또는 시험으로 고통받는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을 위로하고 안심시키는 동시에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역할을 드러낼 목적으로 기록되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시기는 네로 황제 치하였던 서기 60년대 초반과 그 이후인 도미티아누스 황제 치하의 서기 90년대 후반 이렇게 두 가지가 제시되었다. 두 시기는 모두 베드로의 순교 이후이고, 요한은 살아남은 선임 사도였다.

하지만 그의 부름은 그 책에 담긴 시현을 받고 기록하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가 본 시현 중 하나에서 천사는 계시자 요한에게

작은 책 또는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으라고 말했다. 처음 입안에서 달콤했던 그것은 뱃속에서는 쓰게 느껴졌는데, 조셉 스미스는 이를 만물의 회복의 일부로 이스라엘의 집합을 돕는 그의 사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했다.(요한계시록 10:9~11; 교리와 성약 77:14 참조) 이 사명은 요한이 변형된 후에도 성역을 계속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이 요한의 운명에 관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두고 고대와 현대의 주석가들의 해석이 분분하지만(요한복음 21:20~23 참조), 조셉 스미스는 구주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변형된 존재로서의 요한의 사명이 계속될 것임을 확인하는 계시를 받은 바가 있다.(교리와 성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요한1서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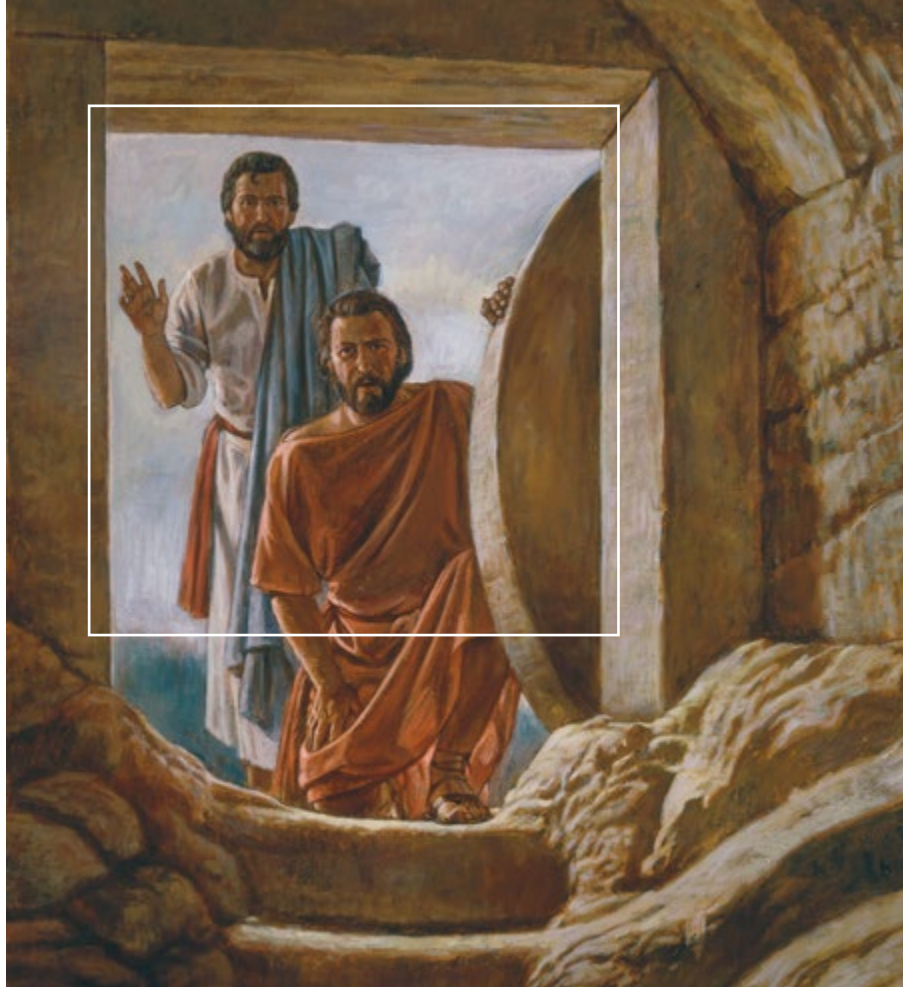
7:1~6 참조) 다시 말해서, 그는 종말을 예언했을 뿐 아니라 그의 사명에는 그러한 예언이 성취되도록 돕고 자신이 받은 예언의 성취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것도 포함되었다.

비록 우리는 그만큼 거대한 사명을 받지는 않지만, 요한의 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때론 쓰기도, 달기도 한 인생의 도전들과 우리의 부름을 받아들이게 한다는 점을 가르쳐 준다.

사랑받는 제자가 되기 위해

요한은 예수의 초기 십이사도 중 선임 사도였으며, 구주와 개인적으로 가까운 관계였고,

구주의 증인, 교회의 지도자, 계시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복음서에서 그는 자신을 사랑받는 제자로 묘사하는 방식을 택하여 자신을 제자로서 우리 모두가 따를 만한 본보기로 삼을 수 있게 했다. 요한에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이 그분의 사랑 안에서 심을 얻을 수 있음을 배우게 된다. 그러한 사랑은 최후의 만찬에서 구주께서 확립하신 것과 같은 의식들을 통해 가장 충만히 깨달을 수 있다. 우리 역시 상징적으로 십자가 발치에 서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음을 간증할 수 있고, 주께서 살아 계심을 배우고자 희망하며 달려 나갈 수 있다. 요한과 똑같이 사랑받는 제자인 우리의 부름은 이 간증을 사람들과 나누고, 진리를 간증하며,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부름을 충실히 행하는 것이다. ■



주

1. 흥미롭게도 요한계시록에만 그 저자가 요한임이 직접적으로 밝혀져 있다.(요한계시록 1:1, 4 참조) 요한복음을 포함해 어떤 복음서도 저자를 밝히지 않는다. 하지만 초기 기독교 전승에서는 요한복음이 나오는 사랑받는 제자를 동명의 사도로 여긴다. 이 동일시에 관한 증거, 학문적 토론, 회복된 통찰에 관한 논의는 주 17을 참고한다. 이와 비슷하게 요한1서도 저자를 밝히지 않았지만, 그 문체와 주제만큼은 요한복음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요한2서와 3서에는 그것이 "장로"의 것이라고 나오지만, 초기 기독교 전승에서 그 기록들은 요한복음과 요한1서의 저자와 연관지어졌다.
2. 마가복음 1:19~20 참조; 또한 마태복음 4:21~22; 누가복음 5:10~11 참조. 대부분의 학자는 마가복음이 먼저(서기 60년대 중반) 쓰였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서기 70년대 또는 서기 80년대 초반에 쓰였다는 데 동의한다. 그 결과, 마가복음을 먼저 읽으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가장 앞선 기록에 어떤 것을 추가하거나 각색을 넣었는지 알 수 있다.
3. 마가복음 10장 35~37절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예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해 달라는 청을 했다고 나오지만, 마태복음 20장 20~21절은 실제로 그 부탁을 한 사람은 그들의 어머니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와 나중에 무덤이 비었을 때 그녀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내용은 다음을 참조한다. 마가복음 15:40; 16:1~8 참조; 또한 마태복음 27:55~56; 누가복음 23:49, 55; 24:1~10; 요한복음 19:25 참조.
4. 살로메에 관한 더 많은 정보와 세베대의 가족 배경 및 어업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고한다. R. Alan Culpepper, *John, the Son of Zebedee: The Life of a Legend*(2000), 7~23.
5. 마가복음 1:21~31, 40~45; 2:1~12; 3:1~6 참조; 또한 마태복음 8:1~4; 9:1~8; 12:9~14; 누가복음 4:33~39; 5:12~15, 17~26; 6:6~11 참조.
6. 산상수훈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5~7장 참조. 요한과 그 밖의 초기 사도들의 부름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3:13~19 참조; 또한 마태복음 10:2~4; 누가복음 6:13~16 참조.
7. 마가복음 5:37 참조; 또한 마태복음 9:23~26; 누가복음 8:51 참조. 단, 마태복음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8. 마가복음 9:2~10 참조; 또한 마태복음 17:1~8; 누가복음 9:28~36 참조.

9. 마가복음 13:3~37 참조.
10. 마가복음 14:32~34 참조; 또한 마태복음 26:36~38 참조.
11. 마가복음 3:17 참조. *Boanerges*는 "격동 또는 천둥의 아들들"을 뜻하는 아람어 *bene regesh* 또는 *rim*의 거친 그리스어 음역인 듯하다.
12. See Culpepper, *John, the Son of Zebedee*, 38—40, 50.
13. 사도행전 3:1~11; 4:1~21; 8:14~17 참조.
14. 요한복음 13:23; 19:26, 34~35; 20:2~10; 21:1~14, 20~25 참조; see also Culpepper, *John, the Son of Zebedee*, 57—69.
15. 교리와 성약 7: 77; 88:141 참조.
16. 요한복음 19:35; 21:24~25 참조; 또한 요한복음 20:30~31 참조.
17. See *Joseph Smith's New Translation of the Bible: Original Manuscripts*, edited by Scott H. Faulring, Kent P. Jackson, and Robert J. Matthews (2004), 234.
18. 사랑받는 제자의 정체에 관한 학문적 논의의 예는 다음을 참고한다. Culpepper, *John, the Son of Zebedee*, 72—85, and Raymond E. Brown, *An Introduction to the Gospel of John*, edited by Francis J. Moloney (2003), 189—99. 요한복음의 출처 또는 저자로서의 사도 요한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한다. Richard Neitzel Holzapfel, Eric D. Huntsman, and Thomas A. Wayment, *Jesus Christ and the World of the New Testament* (2006), 126—27, and my own recent treatment in "The Gospel of John" in *New Testament History, Culture, and Society* (2018), ed. Lincoln Blumell.
19. See Raymond E. Brown, *The Epistles of John* (The Anchor Bible, vol. 30 [1982]), 49—55, 71.
20. See Culpepper, *John, the Son of Zebedee*, 90—95, and Holzapfel, Huntsman, and Wayment, *Jesus Christ and the World of the New Testament*, 274—77.
21. Holzapfel, Huntsman, and Wayment, *Jesus Christ and the World of the New Testament*, 281~82 및 특히 니파이전서 14:18~27; 이더서 4:16; 교리와 성약 7:1~3; 77 참조.

요한은 예수의 사명 중 가장 중요한 사건의 강력한 증인으로서 십자가 발치에 서서 주의 죽음을 목격했고, 부활 후 무덤으로 달려가 무덤이 비어 있음을 확인했으며, 부활하신 구주를 보았다.



금빛 추수, 데이비드 매릴, 교회 역사 박물관 제공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를
믿는 신앙은 수확하는 신앙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이 아닌 그분의
권능을 믿는 신앙입니다.





윌포드 더블유 앤더슨
장로
칠십인 정원회

신앙의 두 단계

리 하이와 그의 가족이 광야에서 지낸 지 며칠 되지 않았을 때, 주님은 리하이에게 그의 아들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 라반의 낯쇠판을 찾아오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리하이의 두 반항적인 아들인 레이맨과 레뮤엘을 좋게 평가하지 않지만, 이들은 이때 실제로 기꺼이 가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한번 시도해 보겠다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레이맨이, 이후에는 그의 다른 형제들과 레뮤엘도 라반에게 판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 과정에서 가족의 재물을 잃었고, 목숨까지 잃을 뻔했습니다.

이때 레이맨과 레뮤엘의 신앙은 좌절되었고, 그들은 판을 찾는 일을 그만두려 했습니다. 반면, 니파이는 위험과 낙담을 딛고 일어났습니다.

“주께서 살아 계시고 우리가 살아 있음같이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을 우리가 이루기까지는, 우리가 광야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로 내려가지 아니할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에 있어 충실하사이다.”(니파이전서 3:15~16)

그런 후 니파이는 큰 신앙을 발휘하여 라반의 판을 확보하고, 형제들과 함께 광야에 있는 아버지에게 돌아왔습니다.

신앙에는 차이가 뚜렷한 두 단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시도해 보려는 신앙, 즉 낫을 휘두르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행하는 신앙입니다. 이것은 낫을 휘두르는 것을 뛰어넘어 수확을 거둬들이는 신앙을 말합니다.

레이맨과 레뮤엘에게는 시도해 보려는 신앙이 있었지만, 니파이에게는 행하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레이맨과 레뮤엘에게는 낫을 휘두를 신앙이 있었지만, 니파이는 수확하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낫을 휘두르는 신앙과 수확하는 신앙의 미묘한 차이는 여러분의 삶을 전적으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 함께 살고 지상에서 결실을 맺는 기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수확하는 신앙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지상에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장차 올 세상에서는 승영에 이를 수 있다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망은 일상에서 도전과 어려움을 겪을 때 사라져 버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받게 될 약속의 땅은 너무도 멀어 보이고,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것같이 느껴지면서 의심이 마음에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해. 내가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될 거라니 말도 안 되지. 주님은 분명 다른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그 약속을 주셨을 거야.’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저를 염두에 두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축복을 받을 만큼의 충분한 신앙이 필요할 뿐입니다. 미래에 관한 약속을 현실로 바꿀 매우 강한 신앙 말입니다. 우리는 수확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수확하는 신앙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고, 우리는 어떻게 그런 신앙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셋째마녀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리스도, 하인 블레멘즈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고자 하는 의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매일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십시오

첫째, 낫을 휘두르는 신앙과는 다르게 수확하는 신앙은 여러분 자신을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감이나 긍정적인 정신적 태도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가족이나 친구들에 대한 믿음도 아닙니다. 그것이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수확하는 신앙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를 믿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닌 그분의 권능을 믿는 신앙입니다.

제가 전에 메사 애리조나 마리코파 스테이크의 스테이크 회장으로 부름받았을 때, 당시 칠십인 총관리 역원이신 더블유 맥 로렌스 장로님이 저희 부부를 스테이크 회장 사무실로 초대하여 부름을 주셨습니다. 저는 충실하게 부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후 장로님은 우리에게 고등평의원실에 들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좌로서 추천할 형제들을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방에 들어갔을 때, 저는 스테이크가 조직된 이래로 이 스테이크에서 봉사하셨던 모든 스테이크 회장님들의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분들은 교회에서도 지역 사회에서도 훌륭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보며 말했습니다. “캐슬린, 나 이 부름을 못할 것 같아요. 난 이분들만큼 잘 해낼 수 없어요.”

그러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글쎄요. 나에게 말하지 말고, 로렌스 장로님께 말씀드려 보세요.”

놀랍게도, 제가 부름을 맡지 못할 것 같다고 하자 로렌스 장로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저도 형제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형제님은 이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앤더슨 형제님,

형제님은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일을 하실 힘이 있으십니다. 형제님이 합당하고 열심히 일한다면, 주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형제님도 그걸 아시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낫을 휘두르는 신앙은 시도해 보려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며, 하려던 일이 어려워지면 곧 사라지는 신앙입니다. 그리고는 의심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수확하는 신앙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그러한 신앙이 있으면 절대 굴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 일치시키십시오

둘째, 수확하는 신앙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망하고 목표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확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절대 수확하는 신앙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우리의 뜻을 그분의 뜻에 일치시켜야만 합니다.

힐라맨서에 나오는 선지자 니파이는 의롭고 충실한 사람이었기에 주님은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영원히 복주어, 너로 말과 행실에, 신앙과 행위에 능하게 하리라. 참으로 네 말을 좇아 모든 일이 네게 이루어지리니.” 굉장한 약속입니다. 그런 후 주님은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이는 네가 내 뜻에 반하는 것을 간구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힐라맨서 10:5)

또한 모로나이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되, 만일 너희가 나를 믿는 신앙을 가지면 내게 합당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리라.”(모로나이서 7:33)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소망을 일치시키는 것은 수확하는 신앙을 갖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제 아들들은 어렸을 때 고등학교 야구부에서 야구를 했습니다. 그 시절에 아이들은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야구부원들과 함께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관중석에서 그것을 지켜보면서 저는 그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경기에서 이기게 해 달라고 기도했던 것이라면, 그들의 기도는 수확하는 신앙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경기에서 졌는지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경기에서 반드시 이기고 싶다는 그들의 열망에 공감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목표를 달성하려 할 때만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무엇이 우리의 유익이 되는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해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고자 하는 의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매일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이 깃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듯이 우리 원대호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누가복음 22:42 참조)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수확을 거둬들이는 신앙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서 행하십시오

수확하는 신앙의 세 번째 전제 조건은 행하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낫을 휘두르는 신앙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수확하는 신앙은 믿음 이상의 것을 요구합니다. 야고보는 귀신들도 믿고 떠다고 기록했습니다.(야고보서 2:17, 19 참조)

제가 들은 한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한 아버지는 어린 딸이 침대 옆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딸은 자신의 오빠가 만들어 뒷마당에 놓아둔 새 텃에 작은 새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후, 아버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텃이 얼마나 잘 만들어진 것인지 알았습니다. 그가 직접 아들이 텃을 만드는 것을 도와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네가 하나님 아버지께 오빠가 놓은 텃에서 작은 새들을 지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들었어. 하지만 우리가 기도해도 때로는 슬픈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다.”

그러자 딸이 대답했습니다. “오빠는 한 마리도 못 잡을 거예요, 아빠.”

아버지는 “네 신앙이 대단하구나, 애야.”라고 답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빠가 새를 잡더라도 네 신앙이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

딸은 “오빠는 못 잡아요, 아빠.” 하고 말했습니다. “오빠가 못 잡는다는 걸 저는 알아요.”

아버지는 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쩔 그렇게 큰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거니?”

그러자 딸은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한 후에 뒷마당으로 가서 그 새 텃을 발로 차서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멘이라고 말한 후에 우리는 가서 행해야 합니다. 발을 떼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주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할 수 있고, 스스로 해야 하는 일을 우리를 위해 해 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로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행해야 하며, 계명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맺은 성약과 수확하는 신앙에서 나오는 진정한 힘을 깨닫게 되는 때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결론을 내릴 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결론을 우리가 내릴 때입니다. 이 위대한 진리를 통해 미래의 약속은 현실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실책하거나 실수할 때 낙담하지 말고 계속 노력하며 확고해지십시오. 수확하는 신앙을 얻기 위해 완벽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수확하는 신앙을 발전시키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를 믿는 신앙을 확고히 하십시오. 그분의 뜻에 여러분의 소망을 일치시키십시오. 그런 다음, 한결같은 확고함과 인내심으로, 온 마음과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가서 행하십시오. 수확하는 신앙으로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이나 문제, 장애물은 없을 것입니다. ■

2015년 3월 17일, 브리검 영 대학교 아이다호 영적 모임에서 전한 “수확하는 신앙”에서 발췌함.



여러분의 신앙을 보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이 늘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에 대한 신앙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러셀 엠 넬슨 회장, “여러분의 신앙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29쪽 참조.

선 지 자
조셉 스미스의
놀라운 사명

*Joseph
Smith*



저

는 선지자이자 한 인간으로서의
조셉 스미스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저는 이 경륜의 시대를
연 선지자의 특별하고도 놀라운
업적을 여러분이 더 잘 이해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조셉 스미스에 관한 지식과 간증의 관계는
선교 사업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어떤 구도자들은 복음의 주요 교리는
받아들이면서도 14세 소년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방문을 받고, 물문경을 번역했으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선지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인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리셀 엠 벨슨 회장님의 가르침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필멸의 삶에서 조셉이 맡은 사명은 예임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감수성이 예민하고
순결하여 주님의 가르침을 쉬이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조셉은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가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를 맡은 선지자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예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에 자주 나타나는 참된 원리를
보여 줍니다. 즉, 주님께서는 믿기 힘든 수단을 통해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말합니다!”¹

선교사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신성한 부름과 놀라운



달린 에이치 옥스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조셉 스미스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어떤
누구보다도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도움이었다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사망할 당시 조셉
스미스는 나무시
시장과 나무 군단
중장을 겸하고
있었다.

조셉 스미스 이세, 윌리엄 윌터이커, 표희 역시 박물관 제공; 식판 인쇄, 교회 역사 도서관 제공



업적에 대한 간증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조셉 스미스의 삶을 65년째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1932년에 태어났는데, 그때는 교회 설립 100주년이 갖 지난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두 번째 세기를 맞이한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충실한 후기 성도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조셉 스미스를 만나 본 적이 없으나, 그를 안다고 느끼며, 그가 드러내고 가르쳐 준 것들을 통해 그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세상은 ‘조셉 [형제]를 다시 알려라’라는 시적인 예언의 참됨을 아는 증인입니다.”²



1. 선지자로서의 조셉 스미스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조셉 스미스는 이 경륜의 시대의 첫 번째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주님의 도구로서 회복을 일으키는 데 쓰였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 선지자를 통해 회복을 이루셨던 것일까요? 주님께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영감을 주시어 기독교 교리에 이해를 더하는 방대한 지식을 주신 것을 모든 후기 성도(와 소수의 비회원)가 다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간단히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신의 속성
- 세 분의 신회 구성원이 각자 하시는 일, 그리고 그분들과 필멸의 존재 사이의 관계
- 인류 타락의 본질
- 필멸의 삶을 사는 목적은 자녀들이 영원한 운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계획을 성취하는 것임
-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속죄의 역할은 불멸을 보장하고 영생을 얻을 기회를 주는 데 있음
-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서 현세적 결혼 및 영원한 결혼이 차지하는 역할
-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서 신권 및 의식이 하는 중요한 역할
-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서 성전과 대리 의식이 하는 중요한 역할
-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자녀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든 몰랐든 간에 이 지상에 살았던 모든 인간은 장차 가장 높은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지식

• 인간과 우주에 관한 진리를 밝혀 주는 세 가지 근원, 곧 과학, 경전 및 계속되는 계시 사이의 관계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이 목록 중 작은 한 부분이라도 공부해 본다면, 조셉 스미스가 대담하고, 새로우며, 귀중한 종교적 개념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강의 상류에 서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에 나오듯이, 조셉 스미스를 통해 충만한 복음이 지상에 회복되었습니다.³

아마 조셉을 통해 몰몬경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을 제가 목록에서 따로 언급하지 않았음을 알아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앞서 말한 많은 새로운 종교적 개념들이 바로 그 새로운 경전에서 나왔음에도 말입니다. 그 책에 관해서는 특별히 따로 말씀드려야만 합니다. 그 책의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이라는 표제는 그 책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선포합니다. 물론 그 책에는 이 기본적인 역할 외에도 많은 역할이 있습니다. 한 베스트셀러 학자는 그 책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몰몬경은 미국이 자유의 제국보다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목표를 제시한다. 몰몬경은 부와 불평등의 증가 추세에 맞서서, 가난한 이들을 돌보아야 함을 주장한다. ... 이 책은 공화정에 맞서서, 판사들과 왕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의롭게 통치할 것을 제안한다. 성경 이외의 경전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다른 기적을 믿지 않는 종교에 맞서서, 몰몬경은 계속되는 계시와 기적, 그리고 모든 국가에 계시가 주어짐을 주장한다. 이 책은

조셉 스미스는 1805년 12월 23일에 미국 버몬트주 샤론에서 태어났다.





조셉 스미스가
대담하고,
새로우며, 귀중한
종교적 개념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강의 상류에 서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의주의에 반대하고
민족주의에
맞서서, 보편적

이스라엘이라는 믿음을 장려한다. 이 책은 한 국가가 재물을 사랑하고, 계시에 저항하며, 이방의 문명이 의로움과 계시와 이스라엘보다 우위를 차지하게 될 때, 그 국가는 재난을 겪게 될 것을 예견한다.”⁴

더 중요한 것으로, 벨스 회장님이 최근에 전하신 몰몬경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은 몰몬경이 “약속된 이스라엘의 집합을 이루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⁵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에 나오듯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몰몬경을 “우리 종교의 종석”이라고 말했습니다.⁶

후기 성도가 아닌 사람들 대부분은 조셉 스미스가 종교 사상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 모릅니다. 전국적으로 시행된 주목할 만한 연구에서 여론 조사원으로 참여한 게리 로렌스는 자신이 조사한

사람 중 거의 절반이 후기 성도들을 비밀에 싸인 은둔자이자 “이상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여긴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⁷ 그가 면담자들에게 “몰몬이즘의 주된 주장은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일곱 명 중 한 명만이 회복의 개념이나 원 기독교 신앙의 재건 등과 비슷한 개념을 말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결과로, 전국에 걸쳐 시행한 또 다른 설문 조사에서도 우리 종교에 대한 인상을 묘사해 보라고 했을 때, 원 기독교 혹은 회복된 기독교의 개념을 말한 응답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⁸

이러한 결과는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많이 알고 있다는 추정을 선교사들이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선교사들은

에덴 동산과 구주를 떠나며, 및 하늘과 땅 사이에 애니 헬레 나이다

자신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몰몬이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우리 신앙에 관한 가장 기초적인 지식을 이해하고 있다고 쉽게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2. 인간으로서의 조셉 스미스

조셉 스미스의 놀라운 삶에 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⁹ 주로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이루어졌던 조셉 스미스에 관한 제 개인적인 연구에서 저는 그가 진취적인 사람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젊고, 감정이 풍부하며, 활기가 넘쳤습니다. 조셉의 인도를 받았던 사람들은 그를 매우 사랑했고, 또 그에게 편히 다가갈 수 있었기에 대개 그를 “조셉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선지자로서 배운 영역은 비교적 젊은 시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시험을 보았을 때 그는 14세였고, 금판을 받았을 때는 21세였으며, (60일도 안 되어 이루어진) 몰몬경 번역을 마쳤을 때 그는 23세였습니다.

조셉은 25세가 되기 전에 교리와 성약에 포함된 계시 중 절반 이상을 받았습니다. 제일회장단이 조직되었을 때 그는 26세였으며, 미주리주에서 감금되어 있다 탈출하여 성도들을 다시 이끌기 시작했을 때는 겨우 33세였습니다. 그는 38년 하고 반년을 산 뒤 죽음을 당했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짧은 생애 동안 자기 몫을 뛰어넘는 세상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일곱 살 때쯤 그는 격렬한 고통이 수반되는 다리 수술을 받았습니다. 집이 가난했기에 정규 교육은 조금밖에 받지 못했으며, 청소년 시절에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장시간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도 수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거룩한 부름에 따른 엄청난 책임을 수행하는 중에도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농부와 상인으로서 일해야 했습니다. 그는 그런 일을 할 때는 선지자로서 일할 때 자신을 지탱해 주었던 그 놀라운 영적 은사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조셉에게 “너는 현세적인 일에 힘을 갖지 못하리니 이것은 네 부름이 아닌 까닭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교리와 성약 24:9)

영적인 면에서, 조셉 스미스는 선지자나 지도자가 되는 법을 배울 만한 본보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경험이 전무한 동료들에게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그와 동료들은 고전하며 함께 배워 나갔습니다. 조셉은 아주 빠른 속도로 지식을 습득하고 성숙해졌습니다. 그가 독특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는 “뒤틀린 금방 배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늘에서 온 사자들에게서 배웠고, 하나님이 주신 다른 계시로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믿습니다.

그가 지닌 은사 중 하나는 그를 따르는 비범한 사람들이 보여 준 그에 대한 사랑과 충성심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육신의 불완전함을 극복하라고 요구할 때에도 조셉은 자신이 그들보다 낫다고 여기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래서 그를 사랑했습니다. 죽음을 당하기 약 한 달 전, 그는 설교 중에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저는 결코 제가 완전하다고 말한 적이 없지만, 제가 가르친 계시에는 아무런 오류도 없습니다.”¹⁰ 조셉 스미스는 “타고난 쾌활한 성격”을 지녔으며, 그 덕분에 그를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조셉 스미스—역사 1:28) 그의 한 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들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그를 사랑했습니다.”¹¹ 공동체 및 지역 사회 건설을 복음의 주된 목적으로 여긴 조셉은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며 기쁨을 느꼈습니다.

언젠가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평생 동안 사람이 힘을 다해 자연에 맞서고 때로는 서로에게 대항해야 했던 변방에 살았습니다. 그는 체구가 컸고 힘이 셸으며 활동적이었습니다. 그는 막대기를 끌어당겨 힘을 겨루는 등 경쟁을 하는 운동을 무척 좋아했습니다.(see *History of the Church*, 5:302) 교회의 기록 보관소에는 그가 친구나 지인들과 벌였던 레슬링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느 안식일에 조셉과 브리검 영은 나무에서 하루 거리에 있는 일리노이주 라무스의 성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월요일에 라무스를 떠나기 전에 조셉은 ‘라무스의 불한당’이라고 불리던 사람과 레슬링 한 판을 겨루었고, 가뿐하게 그를 이겼습니다.(see *Joseph Smith Journal*, 13 March 1843, recorded by Willard Richards, Joseph Smith Collection, LDS Church

조셉 스미스는 21세 때 쿠모라 산에 묻힌 금판을 받았고, 몰몬경 번역을 마쳤을 때는 겨우 23세였다.



Archives) 요즘 대회 일정에는 지역 회원들이 이런 방법으로 방문 총관리 역원을 시험하는 일이 없어서 다행입니다.”¹²

자신의 사명 및 기억과 관련하여 조셉 스미스만큼 공격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조셉이 생애의 마지막 5년을 살았던 일리노이주의 법원 원본 기록에서 그러한 고발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조사해 보았습니다. 고발 중 한 가지는 당시 시장이던 조셉 스미스와 나무시 위원회가 교회에 적대적인 신문인 *나무 익스포지터*를 억압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이 억압은 교회에 대한 적대 행위에 집중되었으며, 조셉이 살해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비 에이치 로버츠를 비롯한 초기 후기 성도 역사가들은 이러한 행위가 불법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젊은 시절에 법대 교수로서 이 주제를 연구해 보았을 때, 저는 그 법적 조치가 1844년의 일리노이주

법률에 기반한 것이었음을 알고 놀랐습니다. 남북전쟁 이전에는 변방 지역에서 신문사를 탄압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당시는 미국 헌법에 명시된 출판의 자유에 대한 보장이 시 정부 및 주 정부의 법적 조치에 적용된다는 공표가 없었을 때입니다. 그것은 1931년에야 미국 대법원이 1868년에 채택한 헌법 수정안을 5대 4로 찬성함으로써 공표됐습니다.¹³ 조셉 스미스가 취한 행동은 우리 시대가 아닌 그가 살던 시대의 법률과 상황에 기반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시카고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역사가 마빈 에스 힐과 저는 조셉 스미스를 살해한 죄로 다섯 사람이 일리노이주에서 재판에 회부되었다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우리는 1845년에 열린 그 재판과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에 관한 정보를 모두 긁어 모으기 위해 온 나라의 도서관과 문서 보관소를 10년 이상 샅샅이 뒤졌습니다. 우리가 저술한 책에서는



조셉 스미스를 개인적으로 알던 일리노이주 주민들의 말과 행동을 검토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조셉을 사랑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으려 했고, 또 다른 이들은 그를 증오했고 죽이기 위해 음모를 꾸몄습니다. 재판 기록 원본 및 그 긴 재판에 관한 증언을 살펴보면, 우리는 살해당한 이와 관련된 그 어떤 불명예스런 내용도 찾지 못했습니다.¹⁴

일리노이주의 재판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되자, 조셉 스미스에 관해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분야의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시카고대 법대 학생이던 조셉

나이: 사진:

- 14 첫번째 시현
- 21 금판을 받음
- 23 물문경 번역을 마침
- 25 교리와 성약의 계시 중 절반을 받음
- 26 제일회장단 조직
- 33 미주리주의 감옥에서 탈출한 뒤 다시 교회를 이끌
- 38 순교

아이 벤틀리와 저는 조셉 스미스가 벌인 사업상의 활동에 관한 수많은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1976년에 우리는 이 주제를 다루는 *Brigham Young University Law Review*[브리검 영 대학교 법률 논평] 기사를 공동 집필했습니다.¹⁵ 1840년대에 미국 전역은 금융 공황과 불경기에 시달렸습니다. 일리노이주와 같은 변방 지역의 경제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예를 들어, 에이브러햄 링컨의 전기 작가들은 이 10년 동안 링컨이 겪었던 재정난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사업이 위태로웠고, 채무 불이행이 이어졌으며, 그에 대한 소송이 잦았다고 묘사하기도 했습니다.¹⁶

조셉 스미스의 적들은 그가 교회를 위해 온갖 방법으로 재산을 거둬 양도했다고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10년 가까이 이어진 여러 차례의 소송을 거치면서 이러한 혐의는 면밀하게 검토되었습니다. 마침내 1852년에 성도들이 일리노이주를 탈출한 지 한참 지나서, (아무도 성도들이나 교회 지도자에게

호의를 가질 어떤 정치적 사유나 기타 사유도 없는 상태에서) 연방 판사는 조셉 스미스에게서 사기 및 기타 도덕적 부당성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법적 판결을 내리며 소송을 종결했습니다.¹⁷

이 시기의 사회적 쟁점들에 정통한 학자들은 조셉 스미스가 미 대통령 대선에 출마한 것을 두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1844년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크지 않았지만, 제3당의 후보로서 기민하게 행동했으며, 미국의 법률적 개혁 촉진에 분명 진지하게 임했다. 그는 노예제, 종교적 자유, 교도소, 공유지 등 중대한 문제에 관한 사회적 담론을 향상하고자 희망하며 일했다. 미합중국 대통령 후보로 있는 동안 암살된 미국인은 조셉 스미스와 로버트 에프 케네디 단 둘뿐이다.”¹⁸

조셉 스미스의 성품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들은 아마도 교회 지도부에서 지근거리에 있었던, 그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이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조셉을 흠모했으며, 선지자로서 그를 지지했습니다. “조셉의 형 하이럼은 그의 곁에서 죽는 편을 택했습니다. 조셉이 살해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존 테일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증언합니다. 조셉은 선하고, 존경받을 만한 고결한 사람이며 ...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그 인물됨이 말할 나위 없이 훌륭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았고, 또 죽었습니다.’(The Gospel Kingdom [1987], 355; 또한 교리와 성약 135:3 참조) 브리검 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보다 조셉 스미스를 더 잘 아는 사람이 이 지상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담대히 말하건대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이 지상에 살았던, 또는 살고 있는 사람 중에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은 없습니다.’[“Remarks,” *Deseret News*, Aug. 27, 1862, 65]¹⁹

조셉 스미스는 1844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 이 전단은 그가 순교하기 불과 5일 전에 진행될 예정이었던 그의 연설을 알리는 광고이다.



3. 조셉 스미스와 법률

앞서 말씀드린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저는 오랫동안 법률적 역사, 특히 조셉 스미스와 당시 미국 법률 체계의 상호 작용에 특별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조셉 스미스가 불과 40건의 소송에만 관여했다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루어진 *Joseph Smith Papers*[조셉 스미스 기록 모음집]에 대한 연구 결과, 우리는 그 숫자가 220건 이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송은 “단순 수금 사례에서 복잡한 법률 이론과 관련된 복잡한 [소송]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습니다. ... 조셉은 [이러한]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고 변호하기 위해 많은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²⁰

후기 성도 학자인 제프리 위커는 우리가 가진 선지자의 생애에 관한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조셉 스미스가 미국 법 체계를 잘 알고 적극적이며 일관되게 관여했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중요한 활동을 무시한다면 그가 시간과 활력을 얼마나 지혜롭고 효과적으로 사용했는지와 관련하여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된다. 그렇기에 변호사이자 판사였고, 법무 장관을 지냈으며, 조셉 스미스와 잘 아는 사이였던 다니엘 에이치 웰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평생 동안 법률가들을 알아 왔다. 그러나 조셉 스미스는 내가 평생 보아 온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변호사였다.’”[as quoted in *The Journal of Jesse Nathaniel Smith: Six Decades in the Early West: Diaries and Papers of a Mormon Pioneer, 1834—1906* (1953), 456]²¹

세 명의 후기 성도 작가는 그 부분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습니다. “법 체계에 깊이 관여한 스미스는 행동의 규칙을 빨리 배우고 이를 합법적으로 사용하여 신생 국가의 법률이 제공하는 새로운 기회와 보호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했다. 그가 연방법에 따라 물문경에 대한 저작권을 얻었던 것, 오하이오주의 법률에 따라 결혼을 집행했던 것, 나부시 조례를 제정했던 것, 종교적 자유의 완전한 보호를 주장했던 것, 연방 토지의 판매를 규제하는 새로운 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했던 것, 인신 보호 영장의 권리를 주장했던 것, 적법한 재판 장소를 요구했던 것, 새로 채택된 연방 파산법 적용을 신청했던 것 등의 법적인 선택과 행위는 그가 법률 문제를 잘 알고 있었으며, 법률에서 허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 분명한 단계를 밟았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 준다. 그는 시간이 날 때면 법률 서적을 공부했다. 그는 헌법의 정확한 표현과 주 법률의 특정 용어를 숙지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는 평생 동안 당시 주 및 연방 차원에서 일어났던 많은



법적인 변화를 통달하고 있었다.”²²

이 세 저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성명을 추가했습니다. “그는 형사 범죄의 피고인으로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공정한 청문회가 열릴 때마다 그는 올곧고 정직한 시민으로 판명되었다.”²³

제가 인용한 책에서 선별하고 분석한 선지자의 소송에 관한 세세한 요약은 제이 르우벤 클라크 법률 대학원의 수많은 학생들의 연구에 근거합니다. 그들은 이 주제와 관련하여 여러 과목을 수강하고, 상세히 연구하여 이 세 저자의 책의 근간을 마련했습니다. 저는 이 법률 대학원 학생들의 의견에 대한 그 저자들의 설명에 매료되었습니다.

“이 책의 이전 판을 교과서로 사용했던 법률 대학원 학생들은 조셉이 책임감 있고, 믿을 수 있고, 충직하고, 세심하고, 자비롭고, 신중하고, 꼼꼼하고, 법을 준수하고, 인내심이 많고, 긍정적이며, 수완이 좋고, 기민하고, 정통하고, 사람을 보는 눈이 있으며, (그들의 말을

“조셉 스미스는
내가 평생
보아 온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변호사였다.”
—유타 준주
법무 장관 다니엘
에이치 웰스



빌자면) 법률적 식견도 뛰어났으며, 특히 다른 사람의 종교 및 시민권을 보호하거나 자신이 맡은 임무를 수행할 때 그러했다는 일관된 의견을 내보였다. ... 조셉 스미스는 비록 여러 번 좌절하고, 실망하고, 법을 다루는 행정가들을 경계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대한 믿음을 결코 잃지 않았으며, 헌법의 비호 아래에서 굳건히 일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했다.”²⁴

5. 결론

조셉 스미스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그 어떤 필멸의 인간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도움이었다고밖에 달리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요약이 좋아합니다.

“그는 뉴욕에서 몰몬경을 번역하고 출판했다. 뉴욕에서 교회를 조직한 다음에는 오하이오주, 미주리주, 일리노이주에서도 재차 교회를 정착시켰다. 커틀랜드, 파웨스트, 나부 등의 도시를 세웠고, 수백 명의 교회 지도자에게 부름을 주고 훈련했다. 히브리어와 성경을 공부하고, 나부의 상호부조회를 창립했으며, 단독으로, 또는 동업자와 함께 사업도 운영했다. 그는 부동산을 개발하고, 성전을 건축했으며, 기사와 사설을 쓰고 게재했다. 그는 대가족의 일원이었으며, 교우 관계가 넓었다. 또한, 대규모 민병대의 최고 사령관과 나부시의 시장 겸 수석 판사직을 비롯해 여러 공직에서 봉사했다. 그는 매주 행하는 예배, 헌납식, 그리고 너무도 자주 있었던

장례식 등에서 정기적으로 설교를 했다. 그는 수만 명의 추종자를 끌어모았고, 수많은 개종자가 미국으로 이주하도록 동기를 부여했다.”²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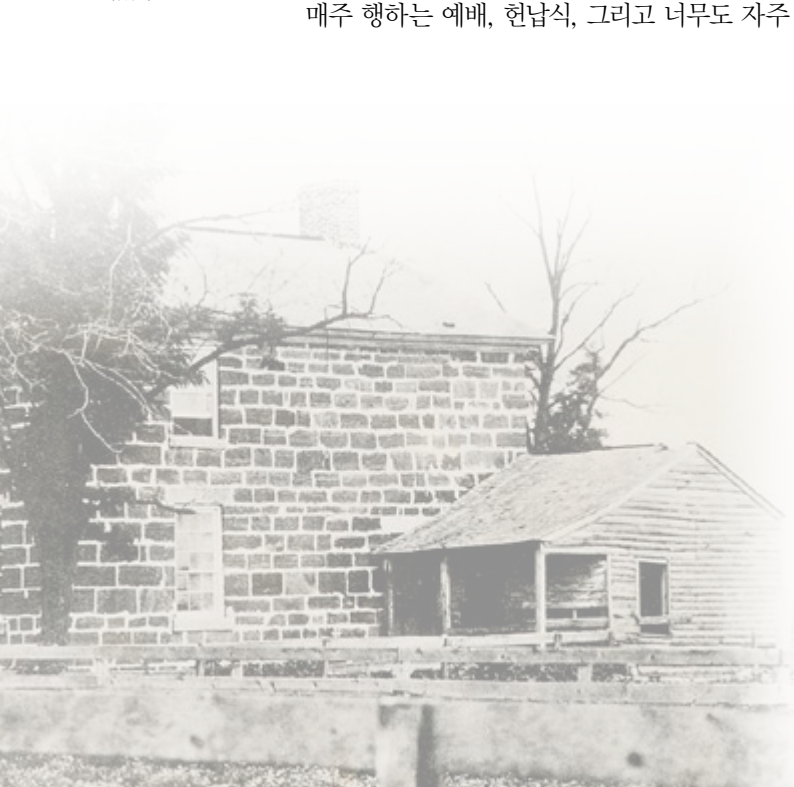
20년도 더 전에 저는 연차 대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충실한 후기 성도들처럼 저도 제 인생을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간증과 사명 위에 세웠습니다. 모든 자료를 읽고 원본을 조사하면서도, 조셉 스미스의 선지자 부름에 대한 간증과 주님께서 그를 통해 복음과 신권을 회복하셨다는 것에 대한 저의 간증은 절대로 시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셉 스미스가 1842년의 그 유명한 웬트워스 서한에서 표현한 간증을 엄숙히 확인합니다.

“진리의 표준은 세워졌습니다. 어떤 신성하지 않은 손도 이 사업이 전진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박해가 들끓고, 폭도들이 연합하여 군대가 모이고, 중상이 명예를 훼손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대륙에 퍼지고, 모든 지역을 찾아가고, 모든 나라를 휩쓸며 모든 귀에 울릴 때까지, 담대하고 고결하고 굳세게 전진할 것이며, 마침내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고 위대하신 여호와께서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Times and Seasons*, 1 March 1842, 709; quoted in Daniel H. Ludlow, ed., *Encyclopedia of Mormonism*, 5 vols. [1992], 4:1754)²⁶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합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소년 선지자에게 나타나셨으며, 그때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조셉 스미스—역사 1:17) 그 이후로 우리는 계시를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들어 왔습니다. 이 교회는 그분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권 권세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대의를 이루기 위해 나아갑니다. 저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부름과 여러분이 종사하고 있는 이 위대한 사업에서 조셉을 계승한 선지자들의 부름에 관해 간증합니다. ■

1844년 6월 27일에 카테지 감옥에서 자신의 형 하이럼과 순교했을 당시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나이는 38세였다.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대륙에 퍼지고
모든 지역을
찾아가고 모든
나라를 휩쓸며
모든 귀에 울릴
때까지 담대하고
고결하고 굳세게
전진할 것이며,
마침내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고
위대하신
여호와께서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조셉 스미스,
웬트워스 서한에서,
1842년 3월 1일

2018년 6월 25일에 개최된 선교부 지도자 세미나 연설, “Joseph Smith: The Prophet and the Man”에서 발췌함.

주

1. Russell M. Nelson, *Accomplishing the Impossible* (2015), 1–2.
2. “찬양해 여호와와 대화한 사람”, 찬송가, 18장.
3.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 사업 지도서(2004), 37쪽 참조.
4. Richard Lyman Bushman, *Joseph Smith: Rough Stone Rolling* (New York: Knopf, 2005), 105.
5. Russell M. Nelson, in Sarah Jane Weaver, “President Nelson Shares the ‘Hopes of My Heart’ with New Mission Leaders,” Church News, June 26, 2018, news.lds.org.
6.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103쪽; 또한 물문경 소개 참조.
7. Gary C. Lawrence, *How Americans View Mormonism: Seven Steps to Improve Our Image* (2008), 32–35 참조.
8. See Gary C. Lawrence, *How Americans View Mormonism*, 42.
9. This portion through the text at note 10 is adapted from Dallin H. Oaks, “Joseph Smith in a Personal World,” in John W. Welch, ed., *The Worlds of Joseph Smith: A Bicentennial Conference at the Library of Congress* (2006), 159.
10.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522쪽.
11. Mary Alice Cannon Lambert, in “Joseph Smith, the Prophet,” *Young Woman’s Journal*, Dec. 1905, 554.
12. 델린 에이치 옥스, “조셉, 의로운 자이며 선지자”, 성도의 빛, 1996년 7월호, 71쪽.
13. See Dallin H. Oaks, “The Suppression of the Nauvoo Expositor,” *Utah Law Review*, vol. 9, no. 4 (1965), 862–903.
14. See Dallin H. Oaks and Marvin S. Hill, *Carthage Conspiracy: The Trial of the Accused Assassins of Joseph Smith* (1975).
15. See Dallin H. Oaks and Joseph I. Bentley, “Joseph Smith and Legal Process: In the Wake of the Steamboat Nauvoo,” *BYU Law Review*, vol. 1976, no. 3 (1976), 735–82.
16. See David Herbert Donald, *Lincoln* (1995), 94–118.
17. See Dallin H. Oaks and Joseph I. Bentley, “Joseph Smith and Legal Process,” 781.
18. Gordon A. Madsen, Jeffrey N. Walker, and John W. Welch, eds., *Sustaining the Law: Joseph Smith’s Legal Encounters* (2014), x–xi.
19. 델린 에이치 옥스, “조셉, 의로운 자이며 선지자”, 73쪽.
20. Jeffrey N. Walker in Gordon A. Madsen and others, eds., *Sustaining the Law*, vi.
21. Jeffrey N. Walker in Gordon A. Madsen and others, eds., *Sustaining the Law*, vii.
22. Gordon A. Madsen and others, eds., *Sustaining the Law*, xvii.
23. Gordon A. Madsen and others, eds., *Sustaining the Law*, xvii–xviii.
24. Gordon A. Madsen and others, eds., *Sustaining the Law*, xviii.
25. Gordon A. Madsen and others, eds., *Sustaining the Law*, xi–xii.
26. 델린 에이치 옥스, “조셉, 의로운 자이며 선지자”, 73쪽.

나무에서 떨어져 내리는 구도자들

19 95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거리에서 전도를 하던 젊은 선교사들은 지역 회장단 일원의 다음과 같은 약속에 고개를 갸웃거렸다.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고 온전히 순종한다면, 침례받을 구도자들이 나무에서 우수수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얼마 후 우리도 그 약속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는 집 앞 인도에 줄지어 선 나무

중 한 그루의 가지를 치고 계셨다. 나무에 올라가 가지를 치던 아버지는 거리에서 본인 쪽으로 걸어오는 두 젊은이를 발견하셨다. 그들이 나무 밑을 지나갈 때, 아버지는 그들에게 영어로 말을 거셨다.

아버지는 사실 영어를 잘 못하셨지만, 몇 마디는 알고 계셨고, 호기심을 느끼셨던 것이다. 이 젊은이들은 누구고, 우리 동네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발길을 멈춘 선교사들은 그 목소리가

대체 어디서 나는지 의아해했다.

아버지는 그들과 대화하기 위해 나무에서 내려오셨다. 선교사들의 이야기와 태도에서 깊은 인상을 받은 아버지는 그들을 집안으로 초대하셨다.

아버지는 이전에 종교 때문에 매우 심란해진 경험이 있으셨지만, 회복된 복음 메시지가 아버지의 마음을 열었다. 아버지는 힘든 시절을 겪으셨고, 변화의 필요성을 알고 계셨다. 선교사들이

나 나무에 올라가 가지를 치던 아버지는 거리에서 본인 쪽으로 걸어오는 두 젊은이를 발견하셨다.



삽화: 로버트 크로퍼드

아버지와 어머니, 할머니와 나를 가르칠 때, 아버지는 그들의 이야기에 집중하셨다.

선교사들이 가르친 진리는 11살 어린인 내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어머니와 할머니도 나와 같은 것을 느끼셨다. 그 결과, 우리는 몇 달 후인 1995년 9월에 모두 침례를 받았다.

선교사들이 마음속에 심어 준 신앙의 씨앗은 교회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고, 복음 가르침을 더 배우고, 신실한 교회 지도자들과 좋은 경험을 쌓아 가며 곧 성장해 나갔다. 우리가 받은 따뜻한 환영으로, 우리 마음속에 심어진 신앙의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지매 나서 백 배의 결실을 하였”다.(누가복음 8:8)

거의 2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에 대한 굳건한 헌신, 성전의 축복, 그리고 영원을 위해 결속된 새로운 세대의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하는 충만하고 행복한 삶이라는 신앙의 열매를 만끽하고 있다.

우리는 영감 어린 약속을 시험해 본 두 명의 충실한 선교사에게 언제까지나 감사할 것이다. ■

야밀라 카미노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두려움에서 흡족히 취함으로

나는 교회에서 평생 활동적인 회원으로 지냈다. 나는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고, 성전에서 결혼한 뒤,



네 명의 훌륭한 딸들을 키웠다. 세월이 흐른 후 나는 몇몇 친구들이 교회 회원 자격을 포기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일부 가족 회원들은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서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그들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도 난생처음으로 교회에 대해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의심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 주었다. 때로 나는 절망감에 사로잡혔다.

그 힘든 시기를 겪을 무렵, 나는 스테이크 대회에 억지로 참석하게 되었다. 대회에서 스테이크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앞으로 어려운 시기에 살아남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강 취하던 데서 흡족히 취하는 쪽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규칙적이고 집중적인 경전 공부를 우리 삶에서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두려움을 느끼게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내 주의를 끌었다. 나는 내가 별다른 노력 없이 복음 공부를 대강했다는 점을 깨달았다. 그 결과로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이다.

나는 작은 책상을 놓고 편안한 의자도 갖다 놓은 뒤 기도로 복음 공부를 시작했다.

나는 스테이크 회장님의 권고를 시험해 보기로 했다.

나는 집으로 와서 복음 공부를 할 공간을 마련했다. 방 한구석에 작은 책상을 놓고 편안한 의자를 갖다 놓았다. 벽에 구주의 사진도 몇 장 붙였다. 경전과 연필 몇 자루, 공책도 챙겼다. 나는 기도로 공부를 시작했다.

한두 주가 지나자, 이것은 일과가 되었다. 나는 먼저 연차 대회 말씀을 듣고 특정 복음 주제를 공부했다. 그런 다음에는 몰문경을 몇 장 읽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진심 어린 기도로 공부를 마쳤다.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나는 6개월 동안 거의 매일 복음을 공부했다. 나는 여러 가지 복음 주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규칙적으로 드리는 진지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더 가까워졌다.

나는 내 간증에 다시금 의지할 수 있게 되었다. 회복된 복음에 관해 받은 새로운 증거 덕분에 의심도 점점 줄어들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면서 걱정이 줄어들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다. 두려움과 절망은 서서히 사라져 갔다. 시간을 낭비하는 활동에 관심이 시들해졌고, 남들에게 더 관대하고 온화해지는 나 자신이 느껴졌다.

내가 스테이크 회장님의 권고에 귀 기울인 덕분에,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 놓으실 수 있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흡족히 취했을 때, 주님께서는 나를 치유하고 회복해 주셨다. ■

맷 맥스웰, 미국 유타주



우리는 온종일 열심히 일했고, 배가 고팠다.
그 돈을 주운 건 어쩌면 우리의 봉사에 대한
축복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배가 고프걸요!

콜 롬비아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던 시절, 비가 내리고 있었고, 동반자와 함께 숙소로 돌아가려면 아직 한 시간이나 남은 때였다. 온종일 걸어 다닌 우리는 굶주리고 지쳐 있었다. 우리는 가르칠 사람을 한 명도 찾지 못했다.

돈도 없었고, 장을 봐 둔 것도 없어서 집에 가 봐야 배고픔을 면하긴 어려웠다. 나는 애써 부정적인 생각을 누르며 선교 사업에 집중하려고 노력했다.

“제가 뭘 찾았나 보세요!” 동반자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다.

그녀는 길에서 돈다발을 주웠다. 표정을 보니 동반자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았다. 음식을 살 수 있어!

하지만 조금 뒤에 동반자는 이렇게 말했다. “안 돼요. 이걸 우리 돈이 아니잖아요!”

나는 ‘하지만 배가 고프걸요!’ 하고 생각했다.

나는 동반자에게 “돈이 누구 것이든 간에 이 밤에 주인을 찾아 줄 수는 없을 거예요.”라고 말했다.

동반자는 나에게 기도해 보자고 제안했다. 그게 옳다는 것을 알았지만, 마음 한편에선 굳이 그래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우리는 온종일 열심히 일했고, 굶주리고 있었다. 그 돈을 주운 건 어쩌면 우리의 봉사에 대한 축복일지도 몰랐다.

그때 어머니 생각이 났다.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우리 자매들에게 항상 정직하라고 가르치셨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고, 우리가 정직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도록 기도하셨다. 어머니가 여기 계셔서 엇나간 선택을 하는 나를 보셨다면 슬퍼하셨을 게 분명했다.

그래서 나는 동반자와 함께 기도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주인을 찾도록 도와 달라고 간구했다. 몇 분 후,

무언가를 찾으며 걸어오는 청년이 보였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고, 속상한 표정이었다. 동반자와 나는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가 찾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운 그 돈임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돈을 돌려주었다. 그는 여러 번이나 우리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 돈은 대학 등록금이었고, 돈을 찾지 못했다면 입학 자격을 잃을 것이었다. 내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나는 좀 전에 그 돈을 쓰고 싶어 했던 마음을 회개했다. 우리는 그의 연락처를 받았고, 그를 포함한 여섯 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나는 그날 밤 훌륭한 모범을 보여 준 동반자에게 감사했다.

나는 우리가 정직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음을 안다. 그날 밤 우리는 먹을 것이 없었지만, 잠자리에 들 때 배고픔을 느낀 기억은 없다. 돈을 주운 일은 결국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었다. ■
이사도라 마르케스 가르시아, 브라질 상파울루

신앙으로 작동한 보일러

남편 마크와 내가 어린 다섯 아이를 키우며 미국 동부에서 살 때, 우리 집은 기름 보일러를 썼다. 우리는 기름 탱크 안에 길이를 잴 수 있는 막대기를 넣어 남은 기름 양을 확인했고, 그렇게 해서 기름 높이가 낮아지면 난방유 회사에 전화를 해서 기름통을 채우게 했다.

유난히 추웠던 1월, 우리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가계에 도움이 될까 해서 나는 밤에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도 했지만, 여전히 생계를 유지하기는 어려웠다. 결국 십일조를 내는 것과 난방비를 내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 양을 재 보니 기름은 5cm만큼 남아 있었다. 그 정도면 고작 하루나 이틀 정도만 난방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믿고 십일조를 내기로 결정했다.

다음 날, 마크는 다시 기름 양을 잰다. 여전히 기름 높이는 5cm가 나왔다. 그다음 날 다시 기름을 측정했을 때에도 기름은 여전히 5cm만큼 남아 있었다. 난방을 올려도 기름은 줄지 않았다. 다음 이틀 동안에도 기름은 계속 5cm만큼 남아 있었다. 보일러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밤에 기뻐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난다. 우리 집 보일러는 기름이

양을 재 보니 기름은 5cm만큼 남아 있었다. 그 정도면 고작 하루나 이틀 정도만 난방을 할 수 있다.

아닌 신앙으로 작동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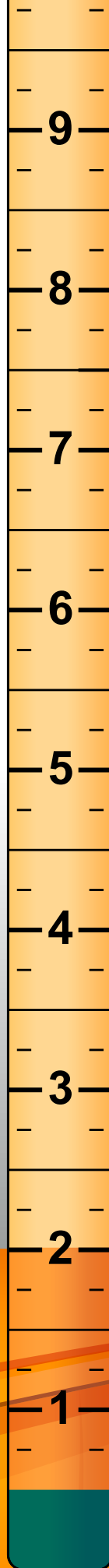
나는 선지자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나서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던” 것을 알게 된 과부와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열왕기상 17:16) 마침내 월급날이 왔고, 그날 마크는 다시 기름 양을 잰다. 이번에는 2.5cm가 나왔다. 기름은 줄고 있었지만, 우리는 이제 기름통을 채울 돈이 있었다.

우리 가족은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주님의 약속을 시험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십일조의 축복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으로 주님을 시험하”라는 주님의 권유를 받아들여 보라고 말하고 싶다. 십일조를 바치는 것은 하늘 문을 여는 일이며, 주님의 율법과 계명에 순종하고 충실하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축복을 받게 된다.

우리 가족은 우리 집 보일러가 기름이 아닌 신앙으로 작동되었던 날들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

로이스 맨시어스, 미국 텍사스주



스컹크 가족을 벗기는 법

나는 자립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우리 선교부 회장님이 하셨던 말씀이 떠오른다. “자신의 스킨크 가족은 자신이 벗겨라.” 그렇다. 이상하게 들리는 말이다. 하지만 이 말은 **인생에는 힘든 것들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과 남에게 자기 대신 그 어려움을 감당해 달라고 할 수는 없다는 진리를 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정서적 자립을 위해 “자신의 스킨크 가족은 자신이 벗”기는 일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실망감을 조절하고 **모든 감정에 대처하는 법을 배우는가?**

감사하게도 우리는 아무 도움도 없이 어둠 속에 남겨진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도움이 될 자원이 많다. “정서적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14가지 방법”에서 그중 몇 가지를 찾아볼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삶을 단순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44쪽 참조)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처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다. 물론 정서적으로 자립한다고 해서 항상 우리가 원하는 기분만 느끼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신의 노력을 통해 **건강하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엠 러셀 벨러드 회장이 그러한 균형감을 찾는 실질적인 조언을 전한다.(48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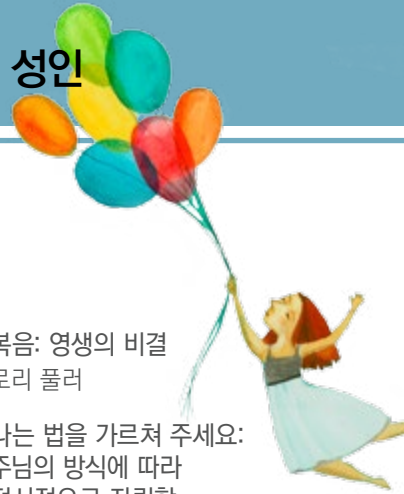
정서적 자립을 위해 노력할 때, 자신이 마치 아주 작고 약한 참새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46쪽 참조) 그러나 우리가 노력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한다면, 언젠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되리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이사야 40:31)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헤쳐 나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멋지게 표현한 말이다.

Kenther Johnson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은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까?
특정 주제에 관한 기사를 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십시오. 여러분의 글이나 피드백을
lihona.lds.org로 제출해 주십시오.

청년 성인



가장 훌륭한 조언 ...

청년 성인들이 정서적, 정신적 건강을 돌보는 것에 관해 자신이 받은 가장 훌륭한 조언을 이야기한다.

“운동할 시간을 만드세요. 마음을 비우세요. 부정적인 생각이나 느낌을 없애 버려요.”

—브리애나 포레스터, 미국 워싱턴주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그리고 현재적으로 치료를 적절히 받은 덕에 제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 지금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 부름장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네이트 실, 미국 유타주

“삶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면서, 모든 선한 일에서 중용을 지키세요.”

—난 크루스, 미국 루이지애나주

“수면을 충분히 취하세요.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건 진짜 중요해요!”

—시드니 스미스, 미국 캘리포니아주

자기 자신에게 너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말라는 것에 대해 여러분이 받은 가장 훌륭한 조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2019년 1월 31일까지 liahona.lds.org로 보내 주십시오.

로리 풀러는 친구들과 잡지의 편집인이다.

로리는 새로운 음악 예술인들을 찾거나 라디오 뉴스를 듣고, 세계 곳곳의 음식을 만드는 것을 좋아한다. 로리는 때로 글도 끄적거린다.



밸러리 듀런트는

미국 캘리포니아 출신이며, 남편 라이언과 결혼한 지 이제 4년이 되었다. 밸러리는 최근 아들을 낳아 엄마가 되었다. 밸러리는 요가, 그림 그리기, 독서, 도보 여행을 좋아한다.



헤더 제이

존슨은 작가이자 편집인이다. 헤더는 수상 스키와 겨울철에 산에서 하는 모험을 즐긴다. 그녀는 또한 영국 문학을 즐겨 읽고, 일상의 대화에서 친밀감 있고 격식 없는 말을 쓰는 걸 선호한다.



데이브 클라크는

아내와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한다. 그는 회계사로서 숫자를 분석하며 일할 때를 제외하고는 달리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농구를 보며 야외에서 시간을 보낸다.



소개

44 복음: 영생의 비결
로리 풀러

46 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주님의 방식에 따라
정서적으로 자립함
밸러리 듀런트

48 인생의 과제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한 8가지 제안
엠 러셀 벨라드 회장

온라인 전용

자신에게 맞는 정신 건강 전문가 찾기
케빈 테리엇

정서적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14가지 방법
헤더 제이 존슨

내가 더는 정신 건강 상담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데이브 클라크

여러분을 위한 더 많은 자료



복음 자료실 앱의 청년 성인 섹션에 있는 “청년 성인을 위한 주간 메시지”에서 매주 새로운 디지털 기사를 찾아보십시오. 온라인 전용 기사와 추가 내용은 [FACEBOOK.COM/LIAHONA](https://www.facebook.com/liahona)를 팔로우하면 볼 수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삶을 더
수월하게 해
주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복음

영생의 비결

로리 풀러
교회 잡지

지난 달에 나는 몇몇 친구와 함께 한 주간 서로에게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한 친구는 알코올 중독에 빠진 어머니의 재활을 돕는 어려운 문제를 감당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는데, 그는 나보다 나이가 더 어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듯했다.

밤이 좀 더 깊어졌을 때, 우리의 대화는 흡연에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지, 그리고 우리의 한 지인이 어떻게 매일 담배를 한 갑씩 피우고 있는지로 이어졌다. (계산을 해 보면, 정말 돈이 많이 든다!) 그녀는 담배를 끊으려 시도했지만, 금단 현상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녀의 아들은 어머니가 담배를 끊으려 한다는 것을 정말 기뻐했다. 그는 아버지를 약물 과다 복용 문제로 여의었기에, 그후부터는 모든 중독성 물질을 두려워했다.

대화의 마지막 주제는 커피였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침마다(또 오후와 때로는 밤에도) 커피를 마시는지, 그리고 그들이 돈이 부족해 매일 라떼를 마시지 못하는 것을 얼마나 애달파하는지 이야기했다.

집으로 차를 몰고 가며 우리가 했던 대화를 곱씹어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 '지혜의 말씀은 그야말로 인생의 기본적인 꿀팁이네.' (이 말에 익숙하지 않다면, "인생의 꿀팁(life hack)"이란 삶을 더 낫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비결을 의미한다. 온라인상에서 누군가가 설명했듯이, 전에 이런 것은 "좋은 아이디어"라는 말로 표현되었다.) 지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여기에 네가 돈을 절약하고, 건강을 지키고, 자녀를 보호하고, 너 자신과 다른 이들의 중독을 포함해 진정 힘든 정서적 짐을 피할 방법이 있단다.” 마치 하나님은 우리가 겪게 될 모든 문제를 예상하셨던 것 같다. 그리고 그분은 그 문제 중 절반은 피할 방법을 주신 것이리라. ...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을 따를 수도, 무시할 수도 있다. ‘지혜의 말씀을 미리 수많은 어려움을 예상하시어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일련의 지침으로 여기자’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만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이 이런 식으로 작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만일 이생과 이곳에서 겪는 어려움을 경험하신 사랑 많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가능한 한 고통 없이 인생을 향해해 나가도록 돕기 위해 지침을 주신 것이라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싶으셔서 그런 지침을 주신 것이라면?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자 하는가?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출애굽기 20:17)

죄책감, 감금, 감당할 수 없는

보석금, 재판 수수료와는 상관없는 삶을 원하는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신뢰와 존중을 받고 싶은가? 직업을 잃지 않고 싶은가? “도둑질하지 말라.”(출애굽기 20:15)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고 이끄시도록, 또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도우실 수 있도록 그분 가까이 머물고 싶은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마태복음 22:37)

이 목록은 계속 이어진다. 각 계명은 우리를 심적 고통에서 보호해 주고, 삶을 더 수월하게 하며, 어려움을 피하고,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축복을 얻는 데 필요한 것은 아주 작은 개인적인 노력과 불편함뿐이다. (더 내야 할 숨은 비용도 없다!)

하나님의 계명을 단순한 지침이나 유익한 꿀팁 따위로 축소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 아니다. 계명은 현세적이고 사소한 인생의 꿀팁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하지만 계명은 동시에 정말 단순하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하실 수는 없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서 우리가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인도하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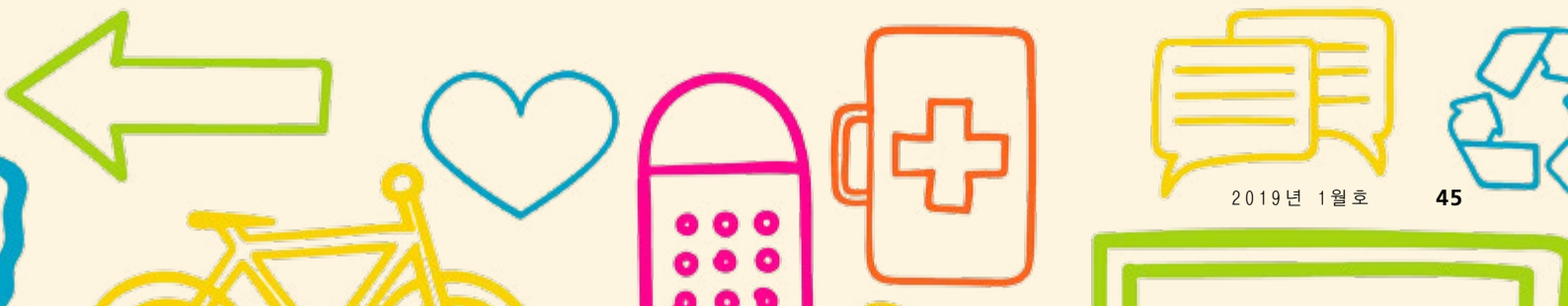
우리가 잘못 선택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우리를 준비시키고 보호하고 싶어 하신다.

물론, 우리가 계명을 지키더라도 여전히 안 좋은 일들은 일어난다. 그렇다면 왜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이 순종할 때 무엇으로부터 보호받게 될지를 절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또,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고통을 자초하는 삶에서 자유로워지기 때문이다.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머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계명은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기꺼이 회개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보호하시는 법을 아신다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이 목록은 계속 이어진다.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들은 계명을 지키지 않을 이유들보다 훨씬 더 긴 목록을 만든다.

결과가 좋은 나쁜든 간에,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순종할지를 선택하게 하신다. 나는 그분께서 나에게 주실 축복을 얼마만큼 받아들일지 선택하게 된다. 그렇다면 나는 왜 계명을 지키는가? 그것은 내가 내 삶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도움을 받고 싶기 때문이다. ■



우리는 정서적으로
자립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해야
하고, 이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주님의 방식에 따라 정서적으로 자립함

밸러리 듀런트
교회 잡지

아 기새가 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대개 그 새의 용감한 마지막 시도를 떠올린다. 둥지 밖으로 떨어지며 날개를 펼치고 하늘로 급상승하며 날아오르는 아기새의 모습을. 하지만 그 마지막 성공 전에 그 아기새는 아마도 날아오르지 못하고 땅으로 그냥 곤두박질치는 실패를 거듭했을 것이다.

나는 법을 배우는 새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자기 힘만으로 정서적 자립을 이루려 한다면 계속해서 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노력한다면,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거기서 회복하고, 감당하기에 너무도 큰 시련이 올 때 주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나는 법을 배우기 위해

나는 법을 배우는 것이 고통스러운 과정이라면, 애당초 왜 새는 둥지를 떠나려 하는 것일까? 그것은 어미 새 때문이다. 아기새가 갓 태어났을 때는 어미가 둥지에 있는 아기새에게 직접 먹이를 가져다준다. 그러나 얼마 후부터는 먹이를 둥지 밖에 두어 아기새가 영양분을 얻기 위해 안전지대를 벗어나 모험을 하게 한다.

이것은 우리가 정서적 자립을 배울 때 견뎌야 하는 것과 같은 과정이다. 하지만 우리는 철저히 자기 힘만으로 자립하기에는 아직 미숙하다.

어미가 자신의 새끼를 둥지 밖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시련과 경험을 통해 고통받고, 좌절하고, 낙담하도록 허락하신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계획은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은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어미새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우리를 위로하고 인도하신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도움을 통해서만 정서적 및 정신적 건강을 얻고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날개를 퍼덕이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곁에서 동반자가 되어 주시지만, 그렇다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시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서적 자립을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의 선택의지를 사용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자원을 사용하기를 바라신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심적 고통, 분노, 또는 상실감을 느낄 때, 그분은 우리가 당신과 상의하기를 바라시지만, 그렇다고 거기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속삭임에 따라 행동하고, 계명을 지키며, 평안과 위안, 응답을 얻기 위해 성전에 가고, 선지자의 권고에 주의를 기울이고, 우리를 위해 마련된 그분의 계획을 신뢰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정서적 자립에 이용할 수 있는 많은 도구를 주셨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도 여전히 정신적인 건강 문제로 고통을 겪는다면, 또 다른 자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인도가 더 필요할 때, 우리는 정신 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감독에게 조언을 구해야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타인의 조언을 구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배우고 성장할 귀중한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점 역시 명심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발전하기 위해 스스로 적절한 만큼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주님의 방식을 따른다

교리와 성약 9편을 보면, 올리버 카우드리는 아무 “생각” 없이 “다만 [하나님께] 간구하기만 하”고 몰몬경 판을 번역하려 한 것 때문에 꾸중을 들었다.(7절) 뒤이어 그는 자신의 “생각으로 그것을 연구”해야 하고, 자신의 결론에 도달한 후, “그것이 옳은지를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훈계를 받았다.

우리가 그러한 방식을 따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자신의 정서적 건강을 돌보는 동안 완전히 우리 자신의 능력과 생각에만 의존하도록 방지하지는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가 선택의지를

행사하는 법을 배울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하는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분과 같이 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염두에 두며, 우리는 단순히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해 달라고 간구하는 대신 어떻게 더 정서적 균형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

정서적 건강이 시험받을 때마다 우리가 이러한 방식으로 선택의지를 행사하고, 또 행사할 때, 우리는 서서히 더 좋은, 더 큰 확신에 찬 사람으로 변모하게 된다. 우리는 아직 나는 법을 통달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분이 우리가 조금씩 더 나아지도록 돕고 계신다는 사실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다. 매일 우리는 날아 올라야 할 새로운 목표 지점들이 있으며, 그럼으로써 우리는 날개를 펼치고 날아오를 그 날을 위해 준비된다. ■

글쓴이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산다.



엠 러셀 벨라드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

제가 드리는 몇
가지 제안이
인생의 여러 과제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과제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한 8가지 제안

1. 첫째, 자신의 인생에 대해 생각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규칙적으로 조용한 시간을 내어 자신이 과연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는가를, 또 그곳에 도착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께서도 자주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누가복음 5:16 참조) 구주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거듭나기 위해 때때로 그와 같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 성취하고 싶은 일들을 기록하십시오. 매일의 계획표를 작성할 때, 여러분이 주님과 맺은 거룩한 성약을 최우선에 두고 명심하십시오.
2. 둘째, 달성 가능한 단기 목표를 정하십시오. 균형이 잘 잡힌 목표를 정하십시오.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목표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아도 안 됩니다. 달성 가능한 목표를 기록하고, 중요도에 따라 그 목표들을 달성하고자 노력하십시오. 목표를 정할 때는 하늘의 인도를 얻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3. 셋째, 현명하게 예산을 계획하여 여러분에게 정말로 필요한 사항들을 욕구에 비교해 보며 주의깊게 평가하십시오. 빛이 많은 사람과 가정이 너무도 많습니다. 돈을 빌리게 하는 그럴듯한 제안들을 조심하십시오. 돈을 꾸는 것이 돈을 갚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재정적인 안정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재정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절대 인생에서 균형을 찾을 수 없을



상화 및 이미지: GETTY IMAGES

것입니다.

항상 완전한 십일조를 바쳐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4. 넷째, 배우자와 자녀, 친척, 친구들과 가까이 지내십시오.
여러분이 삶에서 균형을 유지하도록 그들이 도와줄 것입니다. 허심탄회하게 솔직히 대화함으로써 가족 및 친구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십시오.

훌륭한 결혼과 훌륭한 가족 관계는 부드럽고, 사랑스러우며, 사려 깊은 대화를 통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종종 작은 눈짓, 윙크, 고개를 끄덕이고 살을 맞대는 일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재치 있는 유머와 훌륭한 경청도 훌륭한 대화의 핵심 요소입니다.

5. 다섯째, 경전을 공부하십시오.
경전은 우리가 주님의 영을 가까이 느끼게 해 주는 가장 좋은 근원의 하나입니다.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지식을 얻게 된 한 가지 방법도 바로 경전 공부였습니다.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은 물몬경을 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도록 교회의 회원들에게 권유하셨습니다.

6. 여섯째, 만일 우리가 건강하고 균형잡힌 생활을 즐기고자

한다면, 충분한 수면과 운동 및 휴식을 위해 매일 계획표를 짜서 시간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보기 좋은 외양은 품위와 자존감을 높입니다.

7. 일곱째, 매주 가정의 밤을 하십시오. “왕국의 교리를 서로 가르치니”(교리와 성약 88:77) 이 특별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가족을 영생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의 간증을 파괴하려고 노력하나 우리가 복음을 공부하고 복음의 계명대로 생활한다면, 사탄은 우리의 저항력을 뛰어넘어 우리를 유혹하거나 혼란스럽게 할 힘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8. 마지막 제안은 자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끊임없는 참된 기도를 통해 매일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영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을 때 인생의 모든 일에서 더욱더 쉽게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제안 이외에 다른 것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몇 가지 기본 목표에 초점을 맞출 때 인생에서 생기는 수많은 요구들을 더 잘 처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인생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하려고 하면

균형을 잃게 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동시에, 중요한 것을 너무 소홀히 해도 똑같은 일이 생깁니다. 베냐민 왕은 “모든 일이 지혜와 질서 안에서 행해지도록 할지니”(모사이야서 4:27)라고 권고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목표를 설정하지 않을 때,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고 인생에서 균형을 잃게 됩니다. 우리의 주요 목표는 “불멸과 영생”(모세서 1:39)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라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즉 우리의 주의를 흐트러뜨리는 것과 우리의 생각과 느낌, 정력을 소모시키는 것들을 우리의 생활에서 왜 제거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기본적인 것들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알아차리기도 전에 여러분의 인생은 영적인 이해력으로 충만하게 되고, 이를 통해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그 사람의 인생은 목적과 의미로 가득 차게 되고, 균형을 더욱 쉽게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

1987년 4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발췌함.





이번 호 이야기



내가 교회를 떠난다면?

처음 이사 왔을 때, 우리 지부에서 청녀는 나 외에 단 두 명뿐이었다. 우리는 친구가 되었고, 나는 두 사람을 잘 알게 되었다. 하지만 친구들은 더는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

얼마 후, 성전에 갔을 때 나는 우리 지역의 선교부 회장님을 만나게 되었다. 나는 회장님께 내 친구들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친구들이 교회에 돌아오도록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여쭙었다. 회장님은 나에게 내가 있는 곳에 머물고, 강해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조언하셨다.

얼마 후, 나는 두 청녀 중 한 명을 보았다. 그 친구를 보게 되어 정말 행복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기도하면서 나는 내가 늘 있던 곳에 머물고, 계속 교회에 나가고, 계속 세미나리에 참석하고, 계속 친구들에게 모범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하게 느꼈다. 만일 내가 교회를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친구들이 교회로 돌아온다면 어떻게 될까? 누가 그들의 친구가 될 것이며, 누가 그들이 돌아오도록 도울까? 우리가 함께 할 때 모든 일이 더 쉬워진다.

알요나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주 오브라스트

52 구주와 같이: 중요한 네 부분에서 성장하며
다이앤 토머스

56 역도 선수가 알려 주는 굳건히 서는 법
쿠이니니 마누무아

58 2019년 상호 향상 모임 주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본부 청남 청녀 회장단

60 2019년 상호 향상 모임 주제가: 사랑한다면
닉 데이



64 교회 지도자들의 답변: 성찬, 그리고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것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다이앤 토머스
세미나리 및 종교 교육원

구주와 같이:

중요한 네 부분에서 성장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 과정은
알려진 바가 거의 없지만,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몇 가지
단서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뭘 하라고요?”
나는 강사의 말을 듣긴
했다. 제대로 들었다. 강사는 내
안전 장비를 점검하고, 밧줄을
어떻게 푸는지 한 단계 한 단계
보여 주었다. 그리고 심지어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말했다.
“절대 추락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중요한 순간에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첫걸음을
떼야 한다는 것을 알며 어깨
너머로 아래를, 까마득한 저
아래를 내려다보자, 몸이 벌벌
떨리고 진땀이 났다.
‘절벽 아래로 떨어진다니.’

내가 줄을 타고 안전하게 내려갈 준비가 잘 되어 있기를 빌며, 말 그대로 절벽에서 곧 뛰어내려야 했던 나와 같은 경험을 여러분은 해 보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스스로 경전 공부를 하고 교사들이 참된 교리와 원리에 대해 간증하는 것도 들어 왔다. 여러분은 더욱 구주와 같이 되는 데 도움이 될 방식으로 무언가를 행하라는 영의 권유를 느끼기도 한다. 여러분은 한 발짝 더 내디디며 자신이 주님의 복음에 얼마나 헌신하는지를 보여 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들뜬 것이다.

그런 다음,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지?'

조금 전만 해도 그렇게 분명하고 실행 가능해 보이던 것들이 더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다. 여러분은 자신이 받은 진리에 따라 행동할 적절한 장비나 준비를 갖추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영적인 절벽 끝에 서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처음부터 시작하라

구주께서는 여러분이나 나와 마찬가지로 유아로서 필멸의 삶을 시작하셨다. 그리고 우리처럼 예수님도 시간이 흐르면서 성장하기 시작하셨다.(교리와 성약 93:11~17 참조) 그분은 걷고, 말하고, 웃는 법을 배우셨다. 일하고, 읽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도 배우셨다.

사실 주님이 “자라”나신 방식은 누가복음 2장 5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구주처럼 되고 싶다면, 그분의 모범을 따를 수 있다.

이제 그 방식을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자!



여러분은 자신이 받은 진리에 따라 행동할 적절한 장비나 준비를 갖추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영적인 절벽 끝에 서 있다.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을 창조하셔서 우리가 지식을 평가하고, 처리하고, 실행할 놀라운 능력을 갖추게 하셨다. 사실, 수치, 기술, 절차와 같이 우리가 축적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거의 무한하다!

그러나 구주께서 그러셨듯이 우리도 단순히 정보만이 아니라 지혜를 쌓으려 노력한다. 지혜는 정보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을 이해하며,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임스 이 탈매지(1862~1933) 장로는 “지식을

올바로 사용하면 지혜가 된다.”라고 가르쳤다! 그는 또한 구주께서 지혜를 얻으신 방식을 설명했다. “그분은 연구로 지식을 얻었고, 기도와 생각과 노력으로 지혜를 터득하셨다.”² 엘마는 자신의 아들 힐라맨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오 기억하라, 내 아들이, 그리하여 네가 젊었을 때에 지혜를 배우라. 참으로 네가 젊었을 때에 하나님 계명 지키기를 배우라.”(엘마서 37:35; 강조체 추가) 다음을 생각해 보라. 신앙, 연구, 순종은 지식을 얻고 지혜를 키우는 우리의 역량을 높여 준다!

지혜

여러분의 지혜가 자라도록 신앙과 순종의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지혜가 자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좀 더 구주와 같이 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더 알아보기:
니파이후서
9:28~29; 교리와
성약 130:18~19
참조.

“키가 자라가며”

니파이는 크고 강건했다. 경전에는 그가 “체격[이] 컸”다고 나온다.(니파이전서 2:16) 나는 체격이 크지 않다. 니파이의 체격은 내 체격과는 다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주님께서 그에게 맡기실 임무가 있었기 때문이다. 니파이는 배를 만들고, 가족을 위해 음식을 찾고, 광야를 여행하는 가족들을 도와야 했다.

우리의 육체는 우리가 필멸의 삶을

키

육신을 돌보는 것과 영혼을 돌보는 것은 어떤 면에서 연결되는가?
자신의 육신을 돌보는 방법에서 바꾸거나 개선할 점은 무엇인가?

더 알아보기:
러셀 엠 넬슨
회장의 연차 대회
말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를 읽는다.

경험하고 누리는 데 필요한 면을 갖추고 있다.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 아래 신생하는 시간이 흐르면서 체격이 자란다. 우리는 나이가 들더라도 장거나 팔다리를 추가로 만들 필요가 없다. 그런 요소는 몸의 일부로서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만들어져 있었다. 그러므로 무언가를 더 조립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우리는 육신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영을 위해 완벽하게 설계된 성전, 혹은 집이다.(고린도전서 3:16~17; 6:19~20 참조)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여러분의 몸은 어떠한 재능을 타고났든지 간에,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물입니다. 몸은 육신이 거하는 성막으로, 여러분의 영이 거하는 성전입니다.”³

우리는 현재 필멸의 삶을 경험하는 중이므로, 우리의 육신은 심각한 신체적 어려움, 장애, 고통을 경험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삶에서 얻는 기회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육신을 완벽하게 설계하셨다.

“하나님[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님은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다. “모든 영원을 통해 크고 첫째 되는 진리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온 마음과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만사가 뜻대로 잘 안 풀리는 날에도 그분은 여러분을, 곧 강점과 약점, 의문과 희망을 모두 가지고 있는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질 수 있을까? 여러분이 그분을 사랑하고 있음을 그분께 보여 드리면 된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언젠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요한복음 14:15)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 드린다. 일상적인 작은 일에 기꺼이 순종한다면, 장차 그분이 더 위대한 일들을 성취하도록 부르실 때 여러분은 그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구주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사랑을 어떻게 보이셨는가? 이것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 대해 무엇을 배우는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보여드리기 위해 여러분이 오늘 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의로운 행동은 무엇인가?

더 알아보기:

모사이야서 2:22, 41 참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알게 될 때, 그분을 믿는 신앙이 커지며 자연히 그분의 모범을 따르기를 원하게 됩니다.”

진 비 빙엄,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리아호나, 2017년 11월호, 85쪽.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놀랄 수도 있겠지만, 소셜 미디어 팔로워 수가 가장 많다고 해서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지”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른 방법을 보여 주셨다. 또한 그분은 자신에게 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지도 보여 주셨다. 그분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사도행전 10:38)

제일회장단 제2보좌인 헨리 비 아이어링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어떻게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신
구주의 모범을 따르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여러분의 의로운
영향력은 어떻게 더 커지는가?

더 알아보기:

라모나이 왕에게 암몬이 했던
것과 같은 친구가 된다. 엘마서
17:19~18:41 참조.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는 [오래 전] 제 생애에 큰 영향을 미친 친구들을 아직도 마치 곁에 있는 것처럼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갔지만, 그들이 보여 준 사랑과 모범과 신앙, 그리고 간증에 대한 추억은 여전히 저를 격려해 줍니다.”⁵

친구들에게 영원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여러분은 자신의 영향력을 키울 수 있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는 그 방법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웃는 얼굴로 대하고 그들을 아끼는 여러분의 마음이 전해지도록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십시오. 모든 사람을 친절과 존경심으로 대하고 주변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것을 삼가하십시오. … 부끄럼을 타거나 외로워하고 특별한 도움이 필요하거나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면 친구가 되어 주기 위해 각별히 노력하십시오.”⁶

여러분이 정말로 존경하고 존중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본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는 어떤 특성을 키웠는가? 여러분의 친구들도 좋지만,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이 되신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누가복음 2:52) 구주의 성장 양상을 따를 때, 여러분은 그 요소들이 완벽하게 함께 작용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여러분은 더욱더 그분과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의 생각, 몸, 영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함께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은 많은 사람의 삶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이다!(교리와 성약 4:2) ■

주

1. See James E. Talmage, *The Articles of Faith*, 12th ed. (1924), 90.
2. James E. Talmage, *Jesus the Christ* (1916), 112.
3. 러셀 엠 넬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리아호나*, 1999년 1월호, 85쪽.
4. 제프리 알 홀런드,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리아호나*, 2016년 5월호, 126쪽.
5. 헨리 비 아이어링, “참된 친구”,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32쪽.
6.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소책자, 2011), 16쪽.



쿠이니니 마누무아

고등학교 1학년 때, 역도부 감독님이 역도부에 들어오라는 권유를 해 오셨다.

“음 ... 사양할래요.” 나는 대답했다.
“제 취향이 아니에요.”

하지만 감독님의 권유는 계속되었다.
몇 주 동안이나 말이다.

결국은 시험 삼아 한번 해 보기로 했는데, 결국 감독님이 옳으셨다. 나는 역도를 정말 좋아하게 되었다. 처음엔 진짜 이상했다. 내 몸이 태어나서 처음 해 보는 일이었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나는 점점 운동할 때의 느낌을 정말 좋아하게 되었다. 운동부 친구들도, 경쟁하는 것도 아주 좋았다. 그리고 내 실력은 쭉쭉 늘어 갔다!

이제 역도는 내 삶의 큰 부분이다. 나는 매일 적어도 두세 시간씩은 백스쿼트와 용상 연습, 인상 연습을 한다. (그게 뭔지 몰라도 상관없다. 나도 처음엔 몰랐었으니까!)

다른 많은 것들과 마찬가지로 역도도 인내하며 시간을 들여야 하는데, 때로는 그게 힘들다. 참 다행인 건 나에게는 항상 옆에서 나를 격려해 주는 가족들이 있다는 것이다. 내가 얼마나 아픈지



역도 선수가
알려 주는

굳건히

하나의 경전 구절이 큰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는데, 그건 역도 대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불평해도, 아무리 자주 그래도 말이다. 아빠는 내가 연습을 마치고 집에 가면 항상 얼음 주머니를 준비해 주시고 격려 말씀을 해 주신다. 엄마는 언제나 내가 대회에 나갈 수 있도록 희생을 감수하신다.

몇 년 전에 나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대회에 나갔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역도 선수들과 경쟁하게 되어서 기뻐지만, 가족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조금 걱정도 되었다. 내 걱정을 덜어 주기 위해서 엄마는 매일 문자 메시지로 경전 구절과 생각해 볼 만한 글들을 보내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시합 전 날, 몇몇 친구들이 파티를 열었다.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방을 같이 쓰는 친구와 함께 나도 구경을 갔다. 하지만 도착해서 보니, 그건 내가 생각한 파티가 아니었다. 거기 모인 십 대들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욕설을 하고, 부적절한 춤을 추고 있었다. 나는 그곳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룸메이트 친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 되었다. 또 다른 선수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도 걱정이 되었다.

그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너희는 거룩한 곳에 서서.”

그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경전 구절이고, 그날 아침에 엄마가 문자 메시지로 보내 주신 구절이기도 했다. 교리와 성약 87장 8절이다. “그런즉 너희는 주의 날이 이르기까지 거룩한 곳에 서서 움직이지 말라. 이는 보라, 그 날이 속히 임함이니라. 주가 이르노라. 아멘.”

엄마가 왜 하필 그날 그 경전 구절을 보내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내가 평생 사랑해 온 구절이었다. 나는 여덟 살 때부터 그 구절을 외우고 있었다. 그 구절은 내가 용기를 갖고, 순종하고, 내가 믿는 바를 지지하도록 끊임없이 나를 일깨워 주었다.

“너희는 거룩한 곳에 서서.”

“나는 갈래.” 룸메이트에게 말했다. 나는 엄마가 그날 아침에 보내 주신 경전 구절을 설명했다. “여기는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야.”

그러자 그 친구도 그곳에 있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자신도 마음이 불편했지만 혼자 자리를 떠서 겁쟁이로 보이고 싶지 않았다고 했다. 친구는 내게 이야기를 해 줘서 고맙다고 말했고,

우리는 함께 그곳을 빠져나왔다.

다음 날, 우리는 전날 우리가 막 자리를 뜨고 난 후 그 파티에 있었던 선수들이 음주와 마약 복용으로 적발되었으며, 대회에서도 탈락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엄마가 보내 주신 구절을 기억하지 않았더라면, 나도 실격 처리를 면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그 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다. 그런 대회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다. (엄마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 주신 것에 매일 감사해야 할 것 같다.)

역도 대회 우승은 계명을 지켜서 얻은 꽤 명백하고 즉각적인 축복이었다. 하지만 교리와 성약 87장 8절에는 “역도 대회에서 이길 수 있도록 거룩한 곳에 서”라고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5절에도 “너희가 즉각적인 축복을 원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라고 나오지 않는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고 순종하고자 노력한다. ■

글쓴이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산다.

서는 법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15



본부 청년 회장 보니 에이치 코드 자매(중앙), 제1보좌 미셸 디 크레이그 자매(왼쪽), 제2보좌 베키 크레이븐 자매(오른쪽)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본부 청년 회장단

2019년 상호 향상 모임은 행동하라는 요청을 그 주제로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주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시는 개인적인 권유입니다. 여러분은 완전히 헌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구주를 사랑합니까? 여러분은 구주의 발자취를 기꺼이 따르려 합니까?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스스로를 위해 할 수 없는 일을 해 주셨습니다. 그 대가로 그분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주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당신의 영이 함께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분의 계명을 지키라고 부탁드립니다.(모로나이서 4:3 참조)

계명은 사랑의 선물입니다. 구주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라는 단순한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였을까요? 이는 구주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주께서는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구주께서는 여러분의 삶이 기쁨과 끝없는 가능성으로 가득하기를 바라십니다. 구주께서는 여러분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기를 바라십니다. 구주께서는 도저히 “복을 받을 곳이 없”을

만큼(제3니파이 24:10) 크나큰 복을 여러분에게 부어 주고 싶어 하십니다. 구주께서는 여러분이 돌아와 당신과 다시 함께 살기를 바라시며,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된 축복을 모두 받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완전하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계명을 지키므로써 그분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의로운 행동은 여러분과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의 선지자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청소년 대대에 우리와 함께할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이 대대에 여러분이 없다면 그것은 큰 손실입니다!” 넬슨 회장님은 여러분이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수록된 표준에 따라 생활하고 계명을 지키므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처럼 보이고, 말하고, 행동하고, 복장을 갖추어 입”으며 “세상에서 두드러지고 세상과 구별되”라고 권고하셨습니다.(“이스라엘의



본부 청년 회장 스티븐 더블유 오언 형제(중앙), 제1보좌 더글러스 디 홈즈 형제(왼쪽), 제2보좌 엠 조셉 브로 형제(오른쪽)



소망”[청소년을 위한 전 세계 영적 모임, 2018년 6월 3일], 8, HopeOfIsrael.lds.org)

여러분이 주님과 그분의 선지자들에게 순종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성신의 권능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성한 정체성을 여러분에게 증거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롭게 살기 위해 노력할 때 그러한 축복은 더욱 커집니다. 주님과 선지자들은 여러분을 신뢰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순종하고 계명을 지킬 때, 강한 자신감과 자기 확신, 위로를 얻게 되리라는 것을 약속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본부 청남 회장단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내 간절한 마음을 그분께 어떻게 보여 드릴 수 있을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요한복음 14:15), 그분은 우리에게 한 가지 방법을 알려 주신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분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때로 응답은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이나 방법으로 오지 않기도 하며,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거나 순종하고 싶지 않은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내하고 귀를 기울인다면, 주님께서는 당신이 정하신 시간과 방식에 따라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의로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순종하는 이를 축복하십니다.(모사이야서 2:21~24 참조)

세상은 사랑에 아무런 책임도 따르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32) 선지자 엘마는 더 나아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간악함은 결코 행복이 아니었느니라.”(앨마서 41:10) 주님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하늘에서 변경될 수 없게 선포된 율법이 있어 모든 축복은 이에 근거를 두나니—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어떠한 축복을 얻을 때에는 그것이 근거를 두고 있는 그

율법을 순종하였으므로 얻게 되는 것이니라.”(교리와 성약 130:20~21)

행복과 축복, 인도는 순종을 통해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므로 여러분이 행복하고 자유롭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얻지 못할 평화를 얻고 싶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행복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반드시 배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꺼이, 그리고 부지런히 지킴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영원한 행복을 찾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여러분이 측정할 수 없는 기쁨을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주를 따르는 데서 얻는 평화를 여러분도 발견하셨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보여 주신 길을 걸으십시오. (“Lord, I Would Follow Thee,” *Hymns*, no. 220 참조) 순종하겠다고 결정하십시오. 기꺼이 순종한다면, 여러분은 참된 자유와 행복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



사랑한다면

2019년도 상호 향상 모임 주제가

작사, 작곡: 닉 데이

힘있게 ♩ = 96-108

F Gm Dm Bb

5

1. 사랑, 단순한 말이 나느껴지는 무엇그이상
2. 우리나아갈 방향과 은혜로운 축복 주셨네

5 F Gm Dm

8

사랑, 그가 오신 이 유혼자라느
그분 말씀순종 하 고 그 사랑보

8 Bb F Gm

11

길 때 희망 주시 려 우리도 사랑하
이 면 변화 되 - 리

11 Dm Bb F

© 2018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이 노래는 교회나 가정에서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복사할 수 있음.
본 문구는 모든 사본에 포함되어야 함.

14

리 그 발 자 취 따 라 서 그 분 사

Gm Dm B \flat

17

랑 한 다 먼 보 여 드 리 리

F Gm Dm

20

마 음 을 열 어 이 웃 을 보 살 피 고 힘

B \flat F Gm 7

23

겨 운 누 군 가 의 집 나 누 고 가 르 치 신 대 로 살 고

F B \flat F

26

행 하 리 그 분 을 사 랑 하 면 사 랑 하

26 Gm⁷ F B^b

29 1. 2. 3.

면 면

29 F Gm Dm B^b F

34 To Coda ⊕

사 랑 하 면 모 든 것

34 Gm⁷ Dm⁷ B^b C

38

달 라 질 거 야 그 분 의 사 랑 살 아 갈

38 Dm B^b F C

42

힘 주는 그의 사랑 모든 사랑 마음

Dm C7

45

을 열어 이웃을 보살피고 힘겨운 누군가의 집

F Gm Dm

48

나누고 가르치신 대로 살고 행하리 사랑하면

Bb F Gm Dm

52 D.S. al Coda

53 CODA rit.

마음

Bb F Gm Dm Bb

rit.



1945년 1월 21일,
유타주
아메리칸포크에서
태어남

변호사로
일함



2008년 4월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지지받음

13세 때,
수술을 받은
어머니를
돕기 위해
빵을
구움



대학에 진학할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함

1968년에
캐서린 제이콥과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



다섯 자녀와 열여섯 명의
손주가 있음



성찬, 그리고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것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마지막 만찬에서 행해진 성찬에는 아름다운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이요 생수이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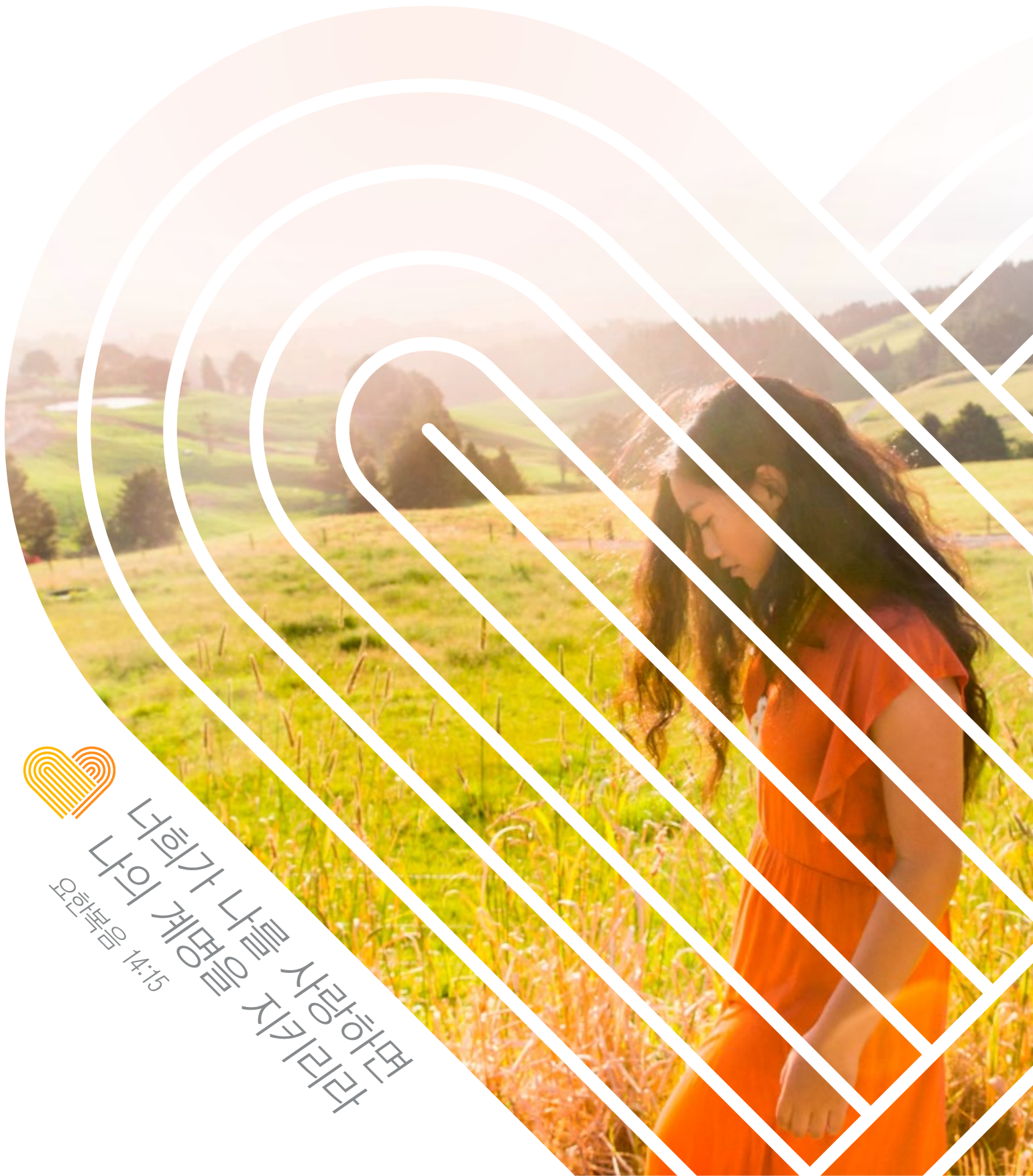
그분의 살과 피를 뜻하는 빵과 물을 생각할 때(요한복음 4:10 참조),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고자 값을 치르셨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습니다. 빵이 떼어질 때, 우리는 구주의 살이 찢기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성찬식에서 물을 마시며, 그분이 겻세마네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그 피의 성결하게 하는 권능을 생각합니다.(모세서 6:60 참조)

그러나 상징적으로 그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데는 더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 그리스도의 특성과 성품을 내면화한다는 것입니다. 매주 성찬식에서 빵과 물을 취하는 시간은 그분의 성품과 죄 없는 삶의 방식을 우리의 삶과 존재에 얼마나 온전히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좋은 기회입니다. 예수께서는 죄 없는 몸이 아니셨더라면 다른 사람을 위해 죄를 대속할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공의의 요구에서 벗어나 있으셨기에, 공의를 충족하고 자비를 베푸시고자 우리를 위해 당신을 내어 줄 수 있으셨습니다. ...

구주의 살을 취하고 그분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과 걸맞지 않은 것은 모두 삶에서 몰아내고 그분의 속성을 취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회개의 의미가 확장된 것으로, 과거의 죄에서 멀어지는 데 그치지 않고 “마음과 의지를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것을 뜻합니다.(경전 안내서, “회개” 참조)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과 흠을 보여 주시겠지만 그것들을 또한 강점으로 바꾸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이더서 12:27 참조) 만일 우리가 진지하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십니까?”라고(마태복음 19:20) 여쭙다면, 그분은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 사랑으로 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

2017년 10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발췌함.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15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청년 성인

삶이 버거운가?

이번 호 청년 성인 기사는 모두 여러분의 정서적, 정신적 건강을 향상하도록 돕는 데 할애되었다.

42

조셉 스미스

선지자의 선함과 성품을
기억함

28

청소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네 가지 방법

52

새로운 상호 향상 모임 주제

구주의 권유

58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4 02186 01320 9

KOREAN

친구들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잡지입니다!



러셀 엠 넬슨
회장

예수님에 대해 알아보세요

하 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다음과 같은 일을 할 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공부하세요. 그것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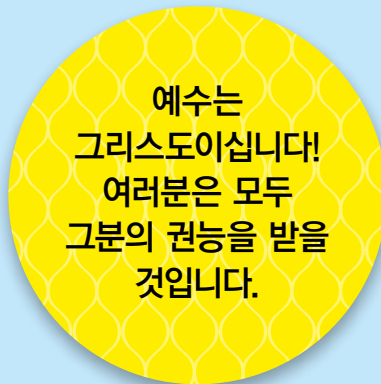
구주에 대해 알아보세요. 몇 해 전에 저는 경전을 읽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모든 성구에 밑줄을 그은 적이 있습니다. 다 마치고 나서 저는 아내에게 “내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뭔가 다르게 보이거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과 필요한 말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생각을 하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교리와 성약 6:36 참조)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의심과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분의 권능을 받을 것입니다.



성약을 맺고 지키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우리 삶에 끌어오십시오”, 리아호나, 2017년 5월호, 39~42쪽에서 발췌함.

정원을 가꾸요!

지상에 사실 때 예수님은 언제나 모든 이에게 친절하셨어요.
우리가 남에게 친절을 베풀 때,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에요.

올해 우리는 정원에 친절을 심을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 때마다 그 이야기를 꽃, 선인장, 나뭇잎, 식물, 채소, 정원에 유익한 곤충 모양의 종이에 적어 보세요! 그런 다음, 그 종이를 우리에게 보내 주세요! 뒤표지를 보면 그 방법이 잘 나와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만의 친절 정원을 만들고, 여러분이 정원에서 "일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 주세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5:12

나이지리아 오순주에 사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친절 정원에 돌 꽃을 만들었어요!



간증 나무

간증을 얻는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머리사 드니스
교회 잡지
실화에 근거함

엘리사는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친구인 알만도 옆에 앉았어요.

“어서 오세요, 여러분!” 루소 자매님이 말했어요. “노래를 부르며 시작합니다.”

엘리사는 반 친구들과 노래를 불렀어요. “신앙의 작은 씨앗 심어 자라면.”(Children’s Songbook, 96)

루소 자매님은 종이와 크레용을 나누어 주셨어요. “우리가 부른 노래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자매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신앙의 씨앗을 심으면, 그것은 자라서 간증이 된답니다. 자, 여러분의 간증이 나무라면 어떤 모양일지 한번 그려 보세요.”

엘리사는 빈 종이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어요. 다른 친구들은 벌써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엘리사는 알만도의 그림을 훑어 보았어요. 알만도의 나무는 줄기가 곧게 뻗었고 잎도 많이 달려 있었어요. 마치 엘리사네 아파트 베란다에서 자라는 바질 같았죠. 어찌면 엘리사의 간증도 그런 모양일지 몰라요! 엘리사는 크레용을 손에 쥐고 알만도가 그린 나무와 똑같은 나무를 그렸어요.

“경전에서 엘마서 32장을 펴 보세요.” 루소 자매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린이들은 씨앗을 마음에 심고 그것이 자라는 것을 느끼는 것에 관한 내용을 읽었어요. 엘리사는 자신의 간증 나무를 바라보았어요. 엘리사의 마음속에도 그런 간증이 있을까요? 그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엘리사는 질문을 하고 싶었지만 너무 부끄러워서 하지 못했어요.

수업이 끝난 후, 루소 자매님이 엘리사에게 다가오셨어요.

“엘리사, 무언가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던데 혹시 무슨 일 있는 거니?” 루소 자매님이 말씀하셨어요.

엘리사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다시 훑어 쳐다보았어요. “제게 간증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진짜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요.”

루소 자매님이 엘리사에게 따스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래도 괜찮아. 신앙이 뭔지 기억하니?”

엘리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믿는 거지요?”

“맞아!” 루소 자매님이 말했어요. “넌 어떤 것들을 믿고 있니?”

그것은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었어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루소 자매님은 빙그레 웃으셨어요. “방금 네가 이야기한 게 너의 간증이야! 복음에 대해 네가 믿는 걸 간증이라고 말한단다.”


엘리사는 선생님 말씀을 곱씹어 보았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이미 간증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고말고!” 루소 자매님은 자매님의 경전을 들어서 보여 주셨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내용 기억하니? 교회에 참석하는 것과 같이 씨앗을 가꾸는 행동들을 하면, 너의 간증은 더 튼튼하게 자라게 될 거야.”

엘리사는 무언가 이해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간증을 나무로 그린 것도 그 때문인가요?”

“맞아. 나무는 조금씩 서서히 자라기 때문이지.” 루소 자매님이 말씀하셨어요. “간증도 똑같아. 보통 한꺼번에 다 오지 않고, 한 번에 조금씩 자란단다.”

엘리사는 자신이 그린 나무가 뭔가 더 좋게 느껴졌어요. 엘리사는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자신이 그린 나무 옆에 “나의 간증 나무”라고 적었어요. 엘리사는 그 그림을 침대 옆에 걸어두었어요. 엘리사는 자신의 간증이 이미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엘리사는 간증이 훨씬 더 커지도록 계속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어요. ●



**간증을
키워 보세요**

간증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또는 “나는
가족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는다”와
같이 여러분이 옳다고 믿는
것이에요.

**나무가
자라는 데** 필요한
것은 물과 햇빛이에요. 경전,
기도, 교회는 우리의 간증에
물과 빛이 되어 주지요.

나무처럼,
사람의 간증은 제마다
다른 속도로 자라나요.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의 지식이 아주
조금씩 자라더라도 기뻐하셔요.

뿌리는
식물을 강하게 해 줘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매일 기억해서 우리의 간증이
튼튼해지게 합시다.

신앙의 씨앗

선 지자 엘마는 간증을 키우는 일을 씨앗 심기에 비유했어요.(엘마서 32장 참조) 여러분이 기도하고, 경전을 읽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면, 여러분의 신앙도 커질 거예요! 씨앗이 싹트는 것을 관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실험해 보세요.

준비물



- 1 젖은 종이 타월이나 화장지를 투명한 비닐봉지 안에 넣으세요. 콩을 그 위에 놓고 봉지를 밀봉하세요.
- 2 해가 잘 드는 곳에 봉지를 놓아주세요. 약 일주일이면 콩에서 싹이 트기 시작할 거예요!
- 3 잠시 식물이 더 자라게 놓아주세요. 뿌리가 나면 새싹을 흙에 옮겨 심으세요. 물을 주고 햇빛을 충분히 받게 하면서 식물이 얼마나 크게 자라는지 관찰해 보세요!



식물을 찍지어 보아요

모든 사람의 간증은 모두 다른 식으로 자랍니다. 각 식물과 그 식물의 그림자를 찍지어 보세요.



신앙

확신을 갖고 ♩ = 80-92

가사: 비어트리스 고프 잭슨
작곡: 마이클 핀린슨 무디

C G7 C F C

1. 매 일 아 침 에 해 뜰 것 을 나 는 알 지 요,
2. 전 세 에서 난 하 나 님 과 함 께 살 았 고

Dm G7 C D G7

주 가 내 기 도 들 어 주 심 나 는 알 아 요.
나 또 다 시 주 와 살 것 을 나 는 알 지 요.

Am C F C G7 C

이 령 게 아 는 것 이 신 앙 이 랍 니 다.
하 나 님 과 주 님 을 나 는 믿 습 니 다.

Am C F C G7 C

행 복 에 넘 치 는 마 음 도 신 앙 이 랍 니 다.
나 주 께 순 종 할 때 에 는 신 앙 이 자 라 죠.

© 2019 by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이 노래는 가정이나 교회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입시로 복사할 수 있음. 본 문구는 모든 사본에 포함되어야 함.

안녕?
여기는
필리핀이에요!



저는 파올로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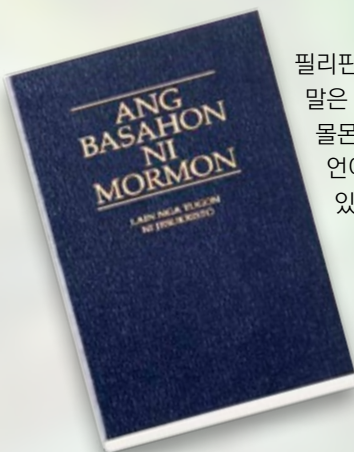
저는 마고예요.



올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기
위해 세계 일주를 떠날 거예요.
우리 함께 필리핀으로 가
볼까요!



필리핀에는 1억 명의
사람들이 재미있는 동물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필리핀에서 주로 쓰는
말은 여덟 가지예요. 이
몰몬경은 '세부아노'라는
언어로 인쇄되어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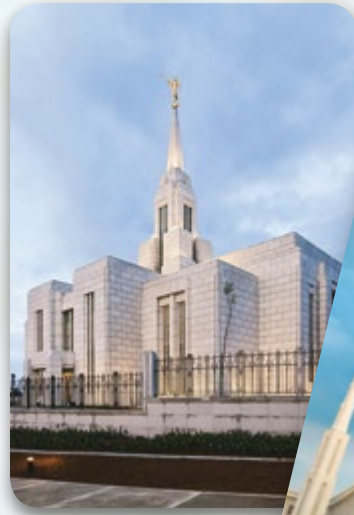


사람들은 교회에 어떻게 갈까요? 일부 필리핀 가족들은
지프니(지프 트럭을 개조한 작은 버스 — 옮긴이)를 타고 다녀요!



이 정의반 반지에는 '타갈로그'라는 필리핀 말로 "옳은 일을 선택하라"가 새겨져 있어요. (PAT-piliin ang tama의 약자.)

이것은 세부시티와 마닐라에 있는 성전 사진이에요. 그거 아세요? 마닐라에서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르다네타'와 '카가안데오로'라는 두 도시에도 성전이 지어질 거예요.



필리핀 아이들은 *luksong tinik*[가시 뛰어 넘기] 놀이를 즐겨 해요. 그건 한두 명이 바닥에 앉아 발과 손을 서로 위에 겹쳐 쌓으면 다른 친구들은 그걸 건드리지 않고 뛰어넘는 놀이예요.

우리와 필리핀
탐험을 함께 해 주어서
고마웠어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필리핀 친구들을 만나 볼까요!



“저는 언제나 가족과 경전 읽는 저녁 시간이 기다려져요. 경전을 읽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라네아 디, 10세,
필리핀 중부 루손



“처음 글자를 배웠을 때 빨리 읽을 수 없어서 속상했어요. 부모님과 누나가 도와주어서 이제는 경전을 읽는 것이 정말 좋아요.”

아쿠멘 디, 7세, 필리핀 중부 루손

필리핀에서 오셨나요?
글을 보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지프니 사진: GETTY IMAGES; 삽화: 케이트 매디

얼음과자로 만드는 선교사 기금

맥케나 클라크
실화에 근거함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요한복음 21:17)

재러드는 부모님과 뜨거운 햇빛을 받으며 교회에서 집으로 걸어갔어요. 재러드는 초등학교 시간에 배운 것을 생각했어요. 재러드는 귀가 잘 들리지 않아서 선생님이 보여 주시는 그림과 칠판에 쓰시는 내용에 신경을 많이 써야 했지요.

그날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교사가 되라고 명하신 이야기를 배웠어요.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대로 복음을 나누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재러드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아직은 선교사로 봉사할 수 없다는 걸 재러드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선교 사업에 쓸 돈을 지금부터 저금할 수 있잖아!

집에 돌아온 재러드는 애완용 염소인 움베르를 그대로 지나쳐서 곧장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 뒤 큰 플라스틱 통을 가져와서 그 위에 조심스럽게 구멍을 내고, “선교사 기금”이라고 적었어요. 재러드는 자기 방으로 가서 침대 밑에 있던 용돈을 꺼냈어요. 그리고는 통에 동전을 하나씩 넣었어요. 동전을 다 넣었는데도 통의 바닥만 겨우 가려졌어요. 어떻게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재러드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창 밖에서 비치는 밝은 햇빛이 재러드의 시야에 들어왔어요. 필리핀은 날씨가 정말 더운 곳이에요. 재러드와 친구들은 거의 매일 방과 후에 코코넛으로 만든 얼음과자를 먹었어요. ‘바로 그거야!’ 재러드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더위를 식히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얼음과자를 만들어 팔 수 있지 않을까?

재러드는 엄마를 찾아 달려갔어요. “얼음과자 만드는 방법을 알려 주실 수 있어요?” 재러드는 수화로 말했어요. 재러드와 엄마는 수화를 사용하는데, 수화는 손으로 말하는 언어예요. 엄마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튿날, 재러드와 엄마는 큰 노천 시장으로 가서 모든 재료를 샀어요. 집에 돌아온 뒤에 재러드는 큰 그릇을 꺼내어 코코넛 우유와 연유, 바닐라와 채 썬 코코넛을 넣고 섞었어요. 엄마와 재러드는 그 혼합물을 깔대기를 이용해서 작은 봉지들 안에 넣었어요. 그런 후 그 봉지들을 모두 냉동고에 넣었어요. “잘했어!” 엄마가 수화로 말하셨어요.

얼음과자를 얼리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다음 날 방과 후에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재러드는 의자 위로 올라가서 냉장고 위에 있는 하얀 아이스박스를 꺼냈어요. 재러드는 아이스박스 안에 수건을 몇 장 깔고 얼음과자를 겹겹이 쌓았어요. 재러드는 당장 장사를 시작하고

싶었지요.

재러드는 먼지 나는 거리로 달려 나갔어요. 친구들은 직접 만든 연을 가지고 놀거나 슬리퍼를 던져 강통을 넘어뜨리는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재러드는 길 한편에 탁자를 놓은 뒤 “얼음과자, 5페소”라고 쓴 큰 표지판을 붙였어요. 그러자 친구 조넬이 뛰어와서 아이스박스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조넬은 재러드에게 5페소 동전을 주었고, 재러드는 얼음과자를 건넸어요. 둘은 손을 높이 들어올리고 손바닥을 짹 하고 마주쳤어요.

곧 얼음과자를 사려는 친구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몇 시간 후, 엄마가 저녁 식사 시간에 재러드를 부르셨을 때 얼음과자는 겨우 몇 개만 남아 있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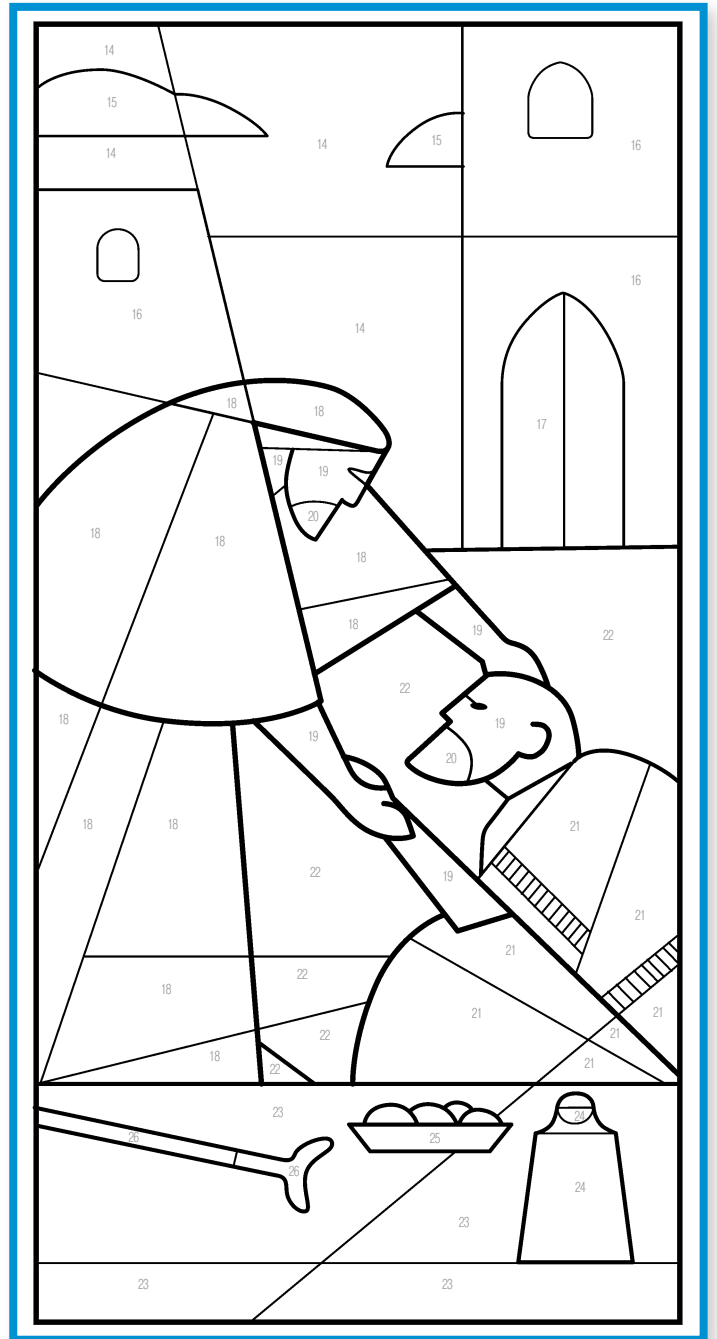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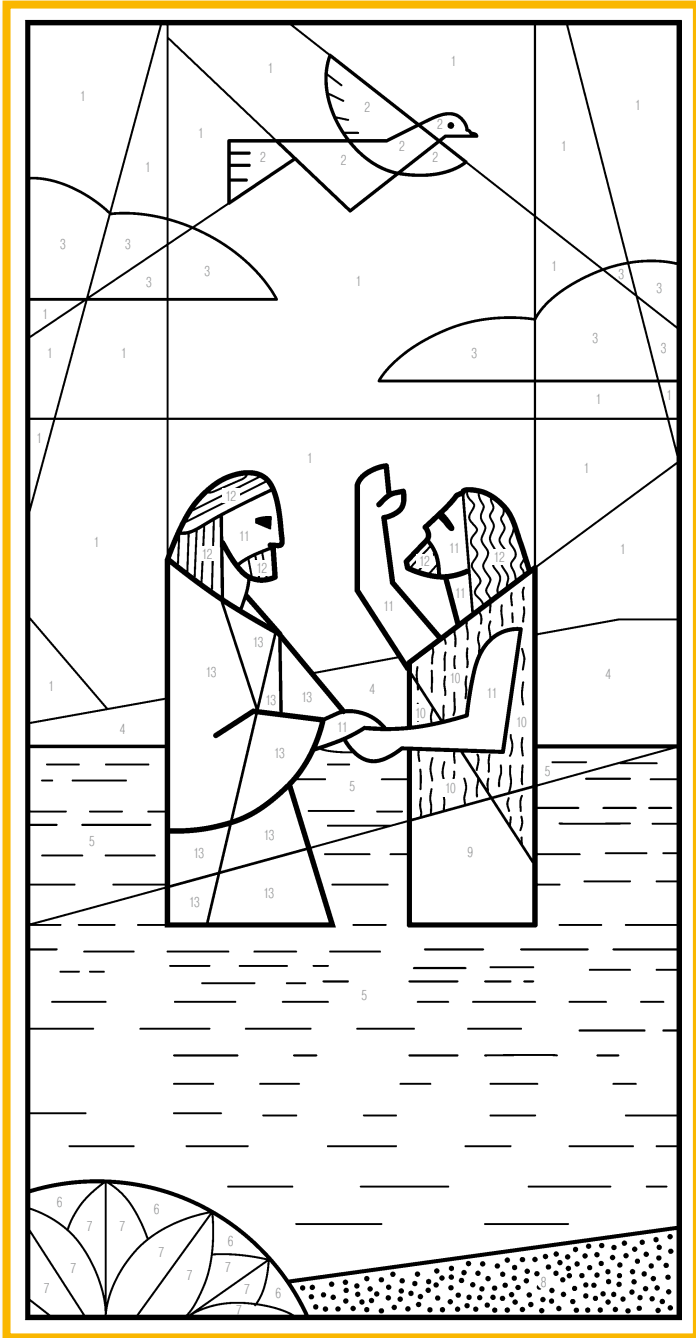
재러드는 거의 비어 버린 아이스박스과 동전들을 집어 들었어요. 재러드는 옷 주머니 한쪽에는 십일조로 낼 동전들을 넣고, 다른 주머니에는 나머지 동전들을 넣었어요. 재러드는 선교사 기금 저금통이 채워지는 걸 빨리 보고 싶었어요.

집으로 온 후, 재러드는 선교 기금으로 모은 동전들을 저금통 바닥에 깔려 있는 동전 위로 떨어뜨렸어요. 아직도 통을 채우려면 훨씬 더 많은 동전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언젠가 선교사로 봉사할 생각을 하니 재러드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재러드는 저금통이 다 찰 때까지 매일 얼음과자를 팔기로 마음먹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돈을 버는 것은 정말 기분 좋은 일이었어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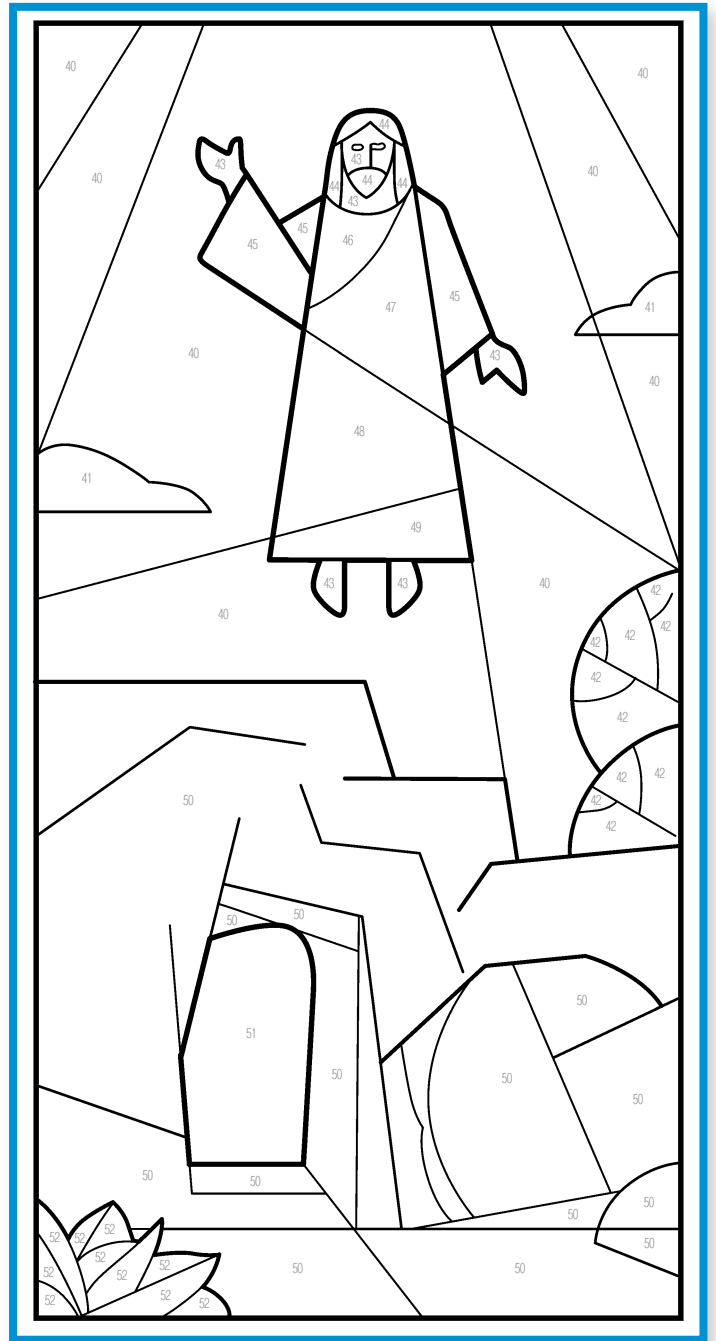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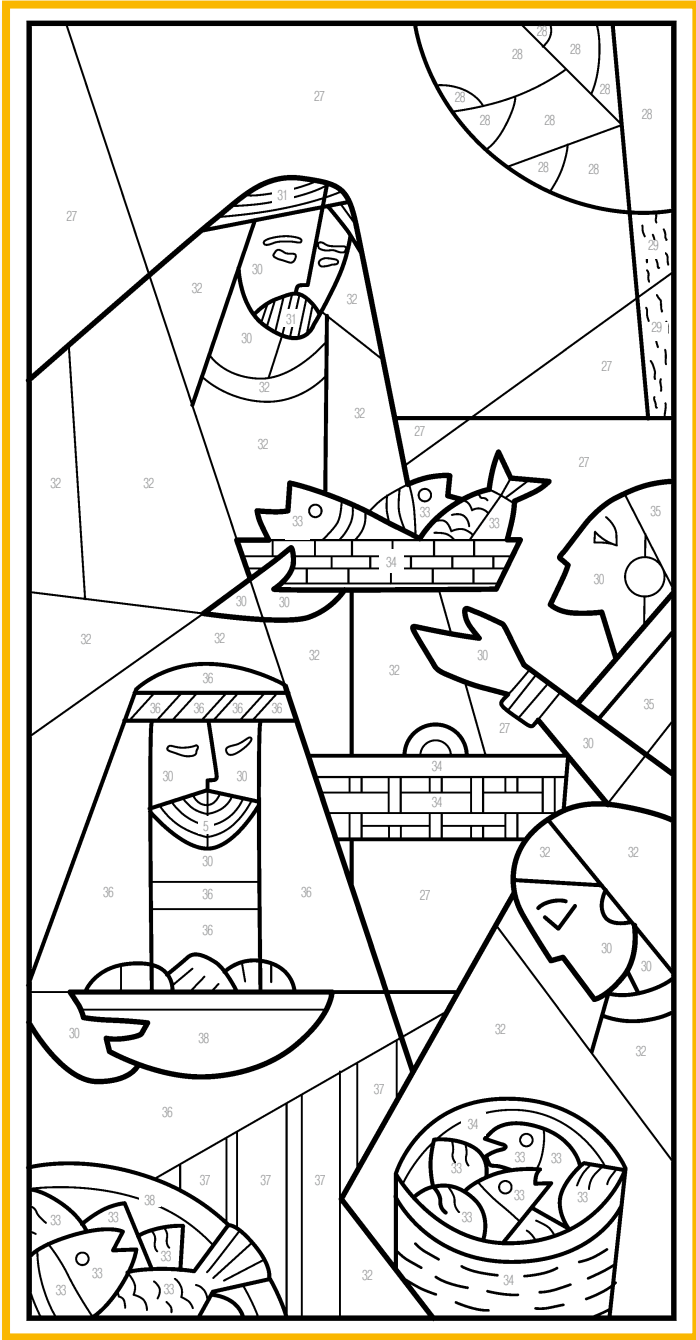
글쓴이는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봉사했고, 현재는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산다.



신약전서 독서표



읽으 해 여러분은 신약전서를 읽으며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갈 수 있을 거예요! 매주 친구들 14쪽에 있는 구절을 읽으면, 초등학교 공과를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구절을 읽은 후에는 그 칸을 색칠해 보세요.



신약전서 독서표

이 성구들은 2019년 교과 과정의 매주 읽기 과제와 일치합니다.

1. 마태복음 25:1~4, 8~13

2. 누가복음 1:30~38

3. 누가복음 2:40~49, 52

4. 요한복음 1:1~5

5. 마태복음 3:11~17

6. 마태복음 4:1~10

7. 요한복음 3:1~5, 14~17

8. 마태복음 5:14~16

9. 마태복음 6:5~8

10. 마가복음 4:35~41

11. 마태복음 12:6~13

12. 마태복음 13:1~9

13. 마태복음 14:22~31

14. 마태복음 16:13~19

15. 마태복음 17:14~20

16. 요한복음 20:10~18

17. 누가복음 10:30~37

18. 요한복음 10:9~18

19. 누가복음 17:11~19

20. 마가복음 10:13~22

21. 마태복음 21:12~17

22. 마태복음 25:31~40

23. 요한복음 13:33~35

24. 마가복음 14:22~24

25. 누가복음 23:32~34, 39~43

26. 요한복음 20:24~29

27. 사도행전 9:1~6, 18~20

28. 사도행전 3:1~10

29. 사도행전 12:5~11

30. 사도행전 17:22~31

31. 사도행전 26:12~20

32. 로마서 6:3~11

33. 로마서 10:13~17

34. 고린도전서 2:11~14

35. 고린도전서 13:1~8

36. 고린도전서 15:13~22

37. 고린도후서 1:3~7

38. 고린도후서 9:6~9

39. 갈라디아서 6:1~10

40. 에베소서 2:4~10

41. 에베소서 6:10~18

42. 골로새서 2:2~7

43. 데살로니가후서 3:7~13

44. 디모데후서 3:14~17

45. 히브리서 1:2~10

46. 히브리서 7:1~6

47. 야고보서 3:1~10

48. 베드로전서 3:12~18

49. 요한1서 5:2~5

50. 요한계시록 5:1~10

51. 누가복음 2:4~12

52. 요한계시록 12:7~11

나는 언제 어디서나, 무엇에 대해서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세요.



미국 텍사스를 방문한 벨라드 회장님

사도들은 전 세계를 다니며 사람들에게 성역을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칩니다.

엄청난 폭풍우를 동반한 허리케인 하비가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을 강타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집이 물에 잠기고 부서져 버렸습니다. 엠 리셀 벨라드 회장은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 텍사스로 비행기를 타고 가셨습니다!



1

비행기가 텍사스에 착륙하자마자 회장은 구호품을 모으고
몰몬 헬핑핸즈 자원 봉사자들을 파견하는 교회의 지휘 본부로
곧장 달려가셨습니다.



3

또, 그곳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교회 회원들도 만났습니다.



2

그 후에는 많은 주택이 침수된 근처 마을들을 방문하셨습니다.
어떤 곳은 길이 막혀 있어서 이곳저곳을 걸어서 방문을 해야
했습니다. 벨라드 회장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셨습니다.





4

벨라드 회장은 한 번의 영적 모임과 세 차례의 성찬식 모임에서 말씀을 하셨고, 많은 이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5

벨라드 회장은 집이 부서져 버린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사도 중 한 명입니다. ... 저희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점을 아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가 이곳에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역을 베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성역을 베푸셨고, 그분의 사도들 역시 그렇게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성역을 베푸는 방법을 보여 주는 그림과 단어를 연결해 봅시다!



도움



경청



축복



나누기



친절 베풀기

오늘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요?

친구들에게 보여 줄 완벽한 보물



에릭 비 머독
실화에 근거함

“내일은 정말 특별한 날이에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은 각자 물건을 가져와서 발표를 해 볼 거예요!”

디에고는 방긋 웃었어요. 디에고는 물건을 가져가서 친구들에게 보여 주며 발표하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디에고는 친구들에게 정말 특별한 걸 보여 주고 싶어서 마음이 들떴어요.

학교 후에 디에고는 엄마께 그 소식을 말씀드렸어요.

“뭘 가져가면 좋을까요?” 디에고가 엄마께 여쭙었어요.

“네가 특별하게 여기는 걸 가져가면 어때?”

엄마가 대답하셨습니다.

“그럼 로보를 데려갈래요!”

“학교에 개를 데려가는 건 어려울 것 같은데.”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들에게 보여 줄 만한 특별한 보물들이 또 있을 거야.”

곧 디에고는 보물찾기를 시작했어요! 디에고는 원숭이 인형을 찾아냈어요. 그걸 가져가면 좋을까요? 하지만 디에고는 멈추지 않았어요.

부엌 의자 뒤도 둘러보고, 책장 위도 살펴보았어요. 디에고는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작정이었어요.





말씀하셨어요. “반 친구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해 무슨 이야기를 해 줄 거니?”

“모든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다고요.”
 디에고가 대답했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그럴 수 있다고요!” ●

그러다 침대 옆으로 눈길을 돌렸어요. 디에고는 그곳에서 완벽한 보물을 발견했어요!

디에고는 엄마께 보여 드리기 위해 달려갔어요. 손에 보물을 꼭 쥐 채로 말이지요.

“엄마! 이거 보세요! 제일 좋은 걸 찾았어요.”

디에고는 작은 사진 한 장을 들어 올려서 엄마께 보여드렸어요. 그것은 어린 소년 시절의 예수님 그림이었어요. 그 그림을 볼 때마다 디에고는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학교 친구들도 그런 좋은 기분을 느끼기를 바랐어요.

“가져가서 친구들에게 보여 주기에 딱 좋은 특별한 물건이구나.” 엄마가



예수님은 배우고 자라셨어요

머리사 위디슨
교회 잡지

예수님은 작은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저처럼요!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돌보아 주었어요. 그러면
나는 누가 돌보아 줄까요?

예수님도 나처럼 조금씩
성장하셨어요. 예수님의 지혜는
점차 커졌어요. 그건 새로운
것들을 배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키가 자라셨어요. 몸이 점점 커졌다는 뜻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사랑스러워지셨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대해 배웠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법을 배우셨고, 경전을 읽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셨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친절히 대하셨고 가족을 도우셨어요.



나는 내 마음과 몸이 자라도록 노력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법을 배울 수 있어요.
나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나도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훌륭하게 자랄 거예요! ●

누가복음 2장 40~52절에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 읽어 보세요.

나는 자라고 있어요



친애하는 부모 및 성인 여러분

여러분에게 새로운 친구들 잡지를 소개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 잡지는 여러분이 받아 보시는 리아호나와 함께 발송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린 자녀가 없다면, 손주나 이웃, 또는 초등학교 어린이들과 이 잡지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친구들 잡지에서 여러분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만나 보게 될 것입니다.

- 20쪽 이상에 걸쳐 수록될 이야기, 노래, 활동
- 색칠하고 그리거나 자르기 쉬운 새로운 용지
- 제일회장단이 전하는 메시지
- 전 세계에서 십이사도 정원회가 베푸는 성역 이야기
- 전 세계 어린이들의 이야기
- 가정의 밤과 가족 경전 공부를 위한 자료

우리는 다음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 여러분의 가족이 이 새로운 친구들 잡지를 사용한 경험
- 이 새로운 잡지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 경험
- 더 좋은 잡지를 만들기 위한 제안

새로운 친구들 잡지

50 E. North Temple Street, Room 2393
Salt Lake City, UT 84150, USA
liahona@ldschurch.org

사랑을 전하며,
친구들

목 차

- F2 제일회장단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해 알아보세요
- F4 간증 나무
- F6 활동: 신앙의 씨앗
- F7 음악: 신앙
- F8 안녕? 여기는 필리핀이에요!
- F10 얼음과자로 만드는 선교사 기금
- F12 신약전서 독서표
- F15 빛나는 아이디어 포스터: 기도
- F16 전 세계를 여행하는 사도들: 미국 텍사스를 방문한 블라드 회장님
- F18 친구들에게 보여 줄 완벽한 보물
- F20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은 배우고 자라셨어요
- F23 색칠하기: 나는 자라고 있어요



이 안에 숨겨진 리아호나를 찾아보세요!

친구들 표지
삽화: 멀리사 맨윌